

## “한 해 보험사기 10兆 추정...전체 지급액의 절반”

### 스페셜 리포트

보험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기 범의 주머니는 내 돈으로 채워진다. 보험은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민간의 공적 부조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보험 근본 질서를 어지럽힌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타낸 개인은 이익 알지 모르지만, 이는 다른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관련기사 3면

연간 보험사기로 민간보험에서만 5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파악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000억 원에 불과하다. 연간으로 환산해도 8000억 원으로 예상 규모의 20%만 적발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적발 보험사기 연간 8000억 2조만 줄어도 보험료 2% 인하 여력

지능범죄·일반인 부정수급 등 다양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처벌 어려워 간호사 등 내부 고발자 신고 중요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기 규모가 얼마인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인 김현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조사부 조사실장은 지난달 27일 현대해상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보험사기 금액이 10조 원

### 금융감독원 적발 보험사기 규모

(단위: 억 원, 괄호 안은 보험사기 비중)

	전체 적발금액	자동차 보험사기	장기손해 보험사기
2016년	7185		
2017년 상반기	3703	1643 (44.4%)	1461 (39.4%)
2017년	7301		
2018년 상반기	4000	1684 (42.1%)	1720 (43%)

을 웃돌 것”이라며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절반은 보험사기와 관련된 금액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기 관련 지급액의 20%인 2조 원만 줄어도 보험료를 더 올릴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겨 최대 2%까지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관측도 내놨다. 김 실장은 경찰 조사관으로 일하다, 2001년 보험사기조사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현대해상 본사에서만 15년째 전국 보험사기의 뒤를 쫓고 있는 업계 베테랑이다. 김 실장은 보험사기를 정의해 달라는 말에 “보험사기는 전문 영역이 아닌 ‘타인 기만행위’라고 답했다. 전문 브로커가 설계한 지능범죄부터 일반인이 보험금을 더 많이 타 내는 것까지 모두 포함 된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을 설명하면서도 각종 제도적 제한과 현실적 문제로 처벌이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관으로서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일이 어렵다”며 “예를 들어 특정 한방병원에 입원한 20명 가운데 진짜 환자 1명을 찾아야만

나머지 19명이 허위 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 단 1명을 찾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기의 특수성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하다. 김 실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실제 치료를 전담한 사람 등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자 없이 기소를 진행하면 기소율이 떨어지고, (해당) 사례와 판례가 남아 (보험사기 혐의자들) 기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증가한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보험사기를 더 많이 적발한 것뿐”이라며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베트남에 문 연 ‘삼성 쇼케이스’ 삼성전자가 15일 동남아 최초로 베트남에 개관한 ‘삼성 쇼케이스’가 취재진 및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호찌민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 1100㎡(약 330평) 규모로 문 연 ‘삼성 쇼케이스’는 미국 뉴욕의 ‘삼성837’,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일 쇼케이스’에 이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세 번째로 세운 브랜드 체험 공간이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증시 불안·부동산시장 위축에 투자처 못찾은 부동산자금 114조

### 올들어 24조 MMF 유입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MMF에 순유입된 자금은 23조9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MMF 설정액은 지난해 말 89조6261억 원에서 113조6088억 원으로 두 달 반 사이에 26.7% 증가했다. MMF는 수시로 현금이 필요하거나 당장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잠시 자금을 보관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금융 상품이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환매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 MMF 설정액이 늘어나고, 그 반대 상황이면 MMF 설정액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올 들어 MMF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코스피가 연초 반짝 상승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3685억 원이, 특히 주식 혼합형 펀드에서도 1166억 원이 순유출됐다. 특히 주식형 펀드에서는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최근 한 달 사이에 4299억 원이 빠져나갔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형평성 강조했지만...전용 면적·시세 다른데 공시가격은 같아” 불만만 키운 ‘주먹구구식’ 공시가

비싼 단지가 오히려 더 낮게 책정 시세 비슷한 공동주택도 들쭉날쭉 “세금 직결...조사방식 선진화 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단지에서 크기가 다른 두 집이 같은 공시가격로 책정되거나 시세가 더 싼 곳이 인근의 더 비싼 곳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사례 등이 나오면서다. ▶관련기사 17면

17일 이투데이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희한 결과, 서울 서초구의 ‘서초현대아파트’ 전용 74.13㎡(2층) 공시가격이 7억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동의 규모가 더 큰 집인 전용 84.34㎡(2층)와 같은 가격이다. 하지만 매매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단지 전용 84㎡는 10억 2000만~12억7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했

시세·면적 무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한국감정원 2018년 12월 31일 기준

지역	단지명	전용 면적(㎡)	시세	공시가격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현대	74.13	9억~10억 원	7억3800만 원
		84.34	10억2000만~12억7000만 원	7억3801만 원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삼호	84.84	7억6000만~8억1000만 원	5억8000만 원
		84.9	8억5000만~9억 원	5억4900만 원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다. 같은 기간 전용 74㎡는 9억~10억 원의 시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큰 평형의 공시가격과 같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5억7100만 원으로 전용 74㎡(5억5800만 원)보다 13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시세가 비싼 단지가 싼 곳보다 오히려 공시가격이 낮게 매겨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삼호’ 전용 84.84㎡(7층)는 공시가격이 5억8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용 84㎡ 시세가 7억6000만~8억1000만 원을 형성했다. 같은 동에 있는 ‘이매촌 한신’ 전용 84.9㎡(7층)는 시세가 8억5000만~9억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더 높게 평가되던 단지다. 하지만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5억4900만 원으로 아름답을 삼호보다 3000만 원가량 낮게 매겨졌다. 김덕레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 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평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 개인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오차 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보다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알림**

2019 이투데이 부동산투자포럼  
**3기 신도시 집중해부**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룸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급등과 신규 아파트 부족 등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잇달아 발표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여파로 주택은 물론 토지·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포럼에는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 고상철 랜드삼 대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다양한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에 둔 시장 대응 전략을 전할 예정입니다. ‘2019 이투데이 부동산 투자 포럼’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의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룸
- 주최 이투데이 미디어
- 후원 국토교통부, LH,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문의 이투데이 사업부 (02) 799-2688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

# 정의선, 4개 계열사 사내이사에... 현안 해결 '운전대'



현대차·모비스·제철 이어 기아차까지 선임  
 현대차·모비스 주총서 엘리엇 이사회 진입 대응 관건  
 해외시장 부진·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마무리도 과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기아자동차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 계열사 4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게 된 것. 본격적으로 그룹 내 운신의 폭을 확대한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아차는 15일 서울 서초구 기아차 본사에서 제75회 주주총회를 열고 정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등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 부회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는 비상근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주

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책임경영 의지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표이사는 말지 않기로 했다. 이미 22일 현대차,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예정된 만큼, 핵심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장악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 정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운신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면적으로 완급을 조절하되 그룹 주요 현안 해결에는 물밑에서 결정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뜻이다. 그룹 주요 경영 전략의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2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총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공세(이사회 진입)를 얼마만큼 막아 내느냐"도 관건이다.

엘리엇이 고(高)배당을 앞세운 주주제안을 내놓자 ISS와 클래스 루이스 등 글로벌 의안자문기관은 반대 입장을 권고한 상태.

다만 이사회 추천 인사의 경우 이들 자문기관이 일부 찬성 입장을 낸 만큼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일단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현대모비스의 사외이사에 엘리엇 측 추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막판까지 여러 변수를 쏟아놓고 얼마만큼 대응에 나서느냐도 주총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총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해도 율 하반기 본격화할 지배구조 개편안 재추진 은 더 큰 숙제다. 여전히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적잖은 주주 환원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부회장이 얼마만큼 임계점을 설정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나아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시장의 실적 부진도 풀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상반기 안에 정 부회장 주도로 구체적인 중국 사업장 구조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주요 주주들로부터 대표적인 '비핵심자산'으로 손꼽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마무리도 핵심과제다. 개발 때 외부 자금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효율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어 부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련의 경영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차기 경영권 승계자로서의 당위성도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주요 계열사까지 운신의 폭을 확대한 만큼, 이들을 얼마만큼 조율해 그룹 전반의 경영 실적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황창규 회장 "5G 없으면 4차 산업혁명 무의미"

'B20 서밋' 후 특파원 간담회  
 "5G, 한국서 세계 첫 상용화  
 통신분야 '반도체'로 키워야"

"지금 한국이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5G(5세대 이동통신) 위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5G를 통해 한국의 4차 산업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5G 전도사'를 자처하는 황창규 KT 회장은 15일 저녁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달부터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가 상용화된다는 이 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 재계 대표 회의인 'B20 서밋' 참석차 도쿄를 찾은 황 회장은 KT에 있었던 지난 5년여 동안 추진했던 여러 혁신 과제 중 제일 중심에 둔 것이 5G 플랫폼이었다며 5G가 KT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상했다.

그는 "빅데이터 등 엄청난 양의 기술이 집적된 5G는 처리 용량은 20배 이상 늘고 지연 시간은 확 떨어진다"며 4차 산업(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 지식 집약적 산업)에는 5G가 필수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KT는 작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커넥티드 버스 운행, 360도 VR(가상현실) 등 5G를 이용한 다섯 가지 서비스를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며 이를 계기로 국제무대에 나

가면 주요국 경영자(CEO)들이 자신을 찾아와 인사할 정도로 KT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5G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5G를 토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5G를 통해 전 산업이 한 자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황 회장은 "지금 한국에선 대기업도 제조업 분야는 고충을 겪고 있다"며 5G를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한 구체적 사례로 현대중공업을 들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1년 전부터 5G를 깔았는데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업무능률도 높아졌다고 한다면서 여

의도 2.4배 면적의 조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인텔리전트 트한' 장소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어 일본을 잘 안다는 황 회장은 이번 B20 도쿄 서밋에 참석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 등 자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일본도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협력해 상당히 많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아직은 우리가 5G 분야에서 세계 최고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기술로 표준도 만드는 등 모든 걸 주도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지금부



황창규(오른쪽) KT 회장이 15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무라트 손메즈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터가 중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 출신인 그는 반도체 사례를 들면서 5G를 통신 플랫폼 분야의 '반도체'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명한 소비자라면  
**ZWCAD**를,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10년 사용시,  
 가격 경쟁력 ZWCAD VS A사 비교

### 합리적인 가격 | A카드 대비 저렴

- 임대가 아닌 영구버전
- 자체 엔진 기반
- 오토카드 완벽 호환
- DWG 100% 호환
- 스케치업, Lisp 호환
- PDF 변환 가능
- 다중 출력 가능 (무상제공 3rd-party 기능)





# “병원 돌며 허위입원”... 반년 새 꿀꺽한 보험금 1720억

## 보험사기 주범 ‘매뚜기 환자’

보험 사기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 사기는 지속적인 단속과 기술 발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해마다 급증해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병원쇼핑·과다입원 전년보다 14.2% 증가  
금감원 적발액 43% 장기손해 분야... 車보험 추월

17일 이투데이가 현대해상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해 1781억 원 규모의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 1627억 원 대비 9.5%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은 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 자동차보험은 79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4.1% 증가세를 보였다.

장기손해보험 보험 사기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을 앞질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 4000억 원 가운데 1720억 원이 장기손해 분야에서 적발됐다.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는 1684억 원으로 장기손해 보험보다 적발 금액이 적었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적발 금액 988억 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 전 적발 금액이 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 사기 유형으로는 대인담보 적발액이 지난해 1억3000만 원(0.4%) 감소했지만 대물담보 적발액은 전년 대비 32억 원(7.9%)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 대부분은 허위·과다 입원 등 병원을 이용한 유형이다. 김현수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조사실장은 “요즘에는 한방 병원을 이용한 사례가 많다”며 “한방 치료는 양방 치료와 달리 치료가 길고 기간이 명확지 않아 계속 한의원과 한방 병원을 돌면서 치료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병원에 20일 이상 머무르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5개월 이상 장기 진료를 받고 이를 이용해 장애 진단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방 병원의 특성상 1회당 진료비가 양방 병원보다 비싸고 통원 치료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한방 병원을 이용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이유다.

또 사무장 병원도 대표적인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온상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곳을 뜻한다. 사무장 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아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정부와 건보공단이 근절에 나설 만큼 문제가 많다.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병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원 환자를 돈으로 보니 치료와 안전에 소홀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17년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받는 대표적인 사례다.

진 팀장은 사무장 병원의 적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업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돼 폐업하더라도 한 달 안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병원이 생기면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의료생협도 정족수만 충족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어서 이를 제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의 실제 국회 통과 후 적용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보험 사기를 담당하는 기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종합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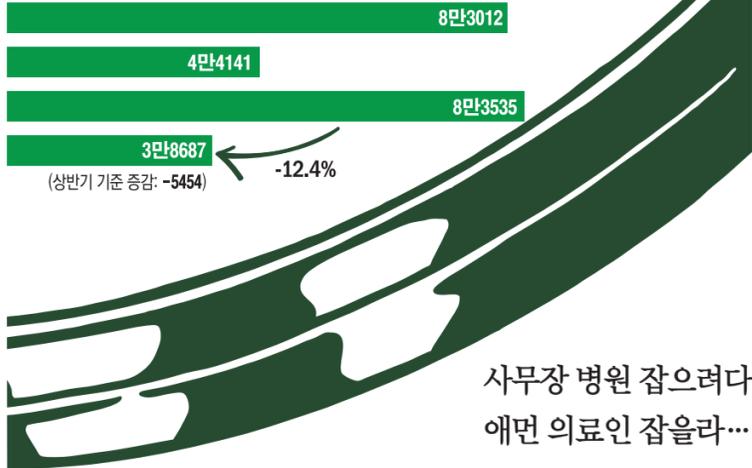
정용욱 기자 dragon@

2018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통계 (단위: 억 원)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7년	2018년 상반기
전체 적발금액	7185	3703	7301	4000
자동차보험사기 비중	-	1643(44.4%)	-	1684(42.1%)
장기손해보험사기 비중	-	1461(39.4%)	-	1720(43%)



보험사기 적발 인원현황 (단위: 명)



사무장 병원 잡으려다  
애먼 의료인 잡을라...

## 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 내부 고발하자니 사실상 공범 특사경 출범, 과잉수사 우려도

최근 급증하는 보험 사기 대부분은 장기손해보험을 활용한 의료 사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약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기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또 병원 개설시 소속 시와 도 의사회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저지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칙에 처할 상황에서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 신고자에 대

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 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협회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특사경 출범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사법당국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특사경 운영을 시작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사무장 병원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와 역할이 중첩되고, 경찰과 공조하는 수준에서도 영향력이 충분하므로 특사경 출범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과 정상적인 의료법인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단이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것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편한 수단을 찾는 것뿐이다. 경찰과 수사 공조 강화 등 방법론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되어 병원이 파산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고, 정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사경이 과잉 수사에 나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입안 시 공정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중요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50 DB그룹창립50주년  
도전 50년 · 큰 꿈 100년

# 꿈은 이루어집니다

DB가 당신의 꿈과 함께 합니다

네 꿈을 펼치라

## Dream Big

# DB

# ‘억대 연봉’ 의원님, 4명 중 1명은 올 법안발의 ‘0건’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올 들어 법안 발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230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각 상임위원장 제출 법안을 제외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198건이다.

올 들어 의원 한 사람이 평균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미다. 수치만 보면 양호하다. 그간 국회가 여야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법안 발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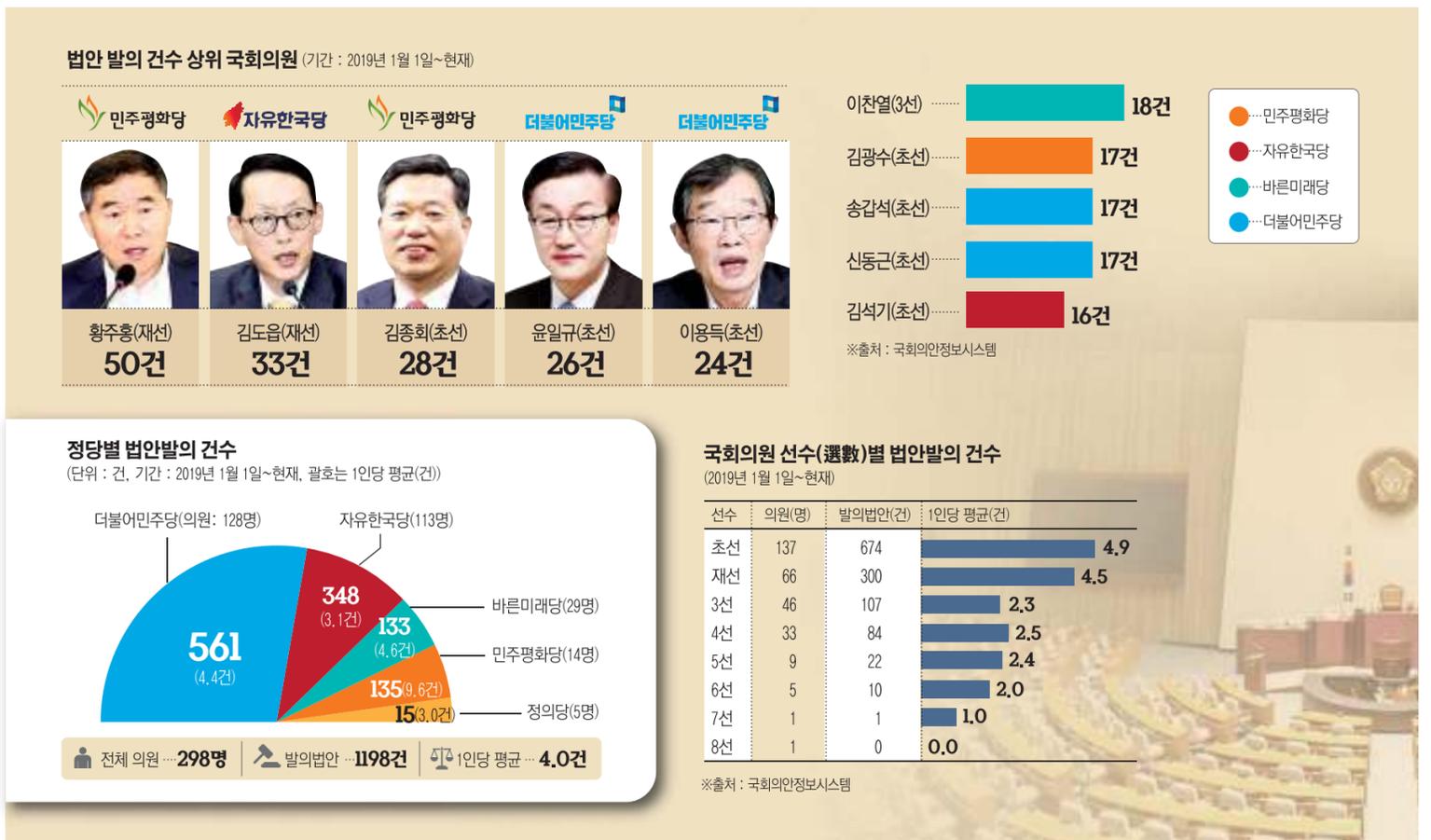
법안 발의 실적은 의원마다 편차가 심했다. 이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72명은 올 들어 발의한 법안이 0건이었다. 여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현 정부에서 장관을 겸직 중인 의원 5명, 구속 수감 중인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64명의 실적이 전무했다. 단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39명, 2건인 의원은 34명이었다. 올 들어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당수 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전체적으로 발의 건수가 많았던 것은 일부 의원이 그만큼 많은 법안을 낸 결과다. 가장 법안을 많이 낸 사람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총 5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33건, 김종희 민주평화당 의원 28건,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6건, 이용득 민주당 의원 24건 등 순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의 의원이 10건 이상 법안을 제출했다.

통상 각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제출한 법안의 수는 정당별로 격차를 보였다.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가장 활발했던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총 135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속 의원(14명) 1명당 평균 9.6건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는 바른미래당이 의원 1인당



## 올들어 의원 발의 1198건 의원 1인당 평균 4.0건꼴 선수 낮을수록 입법활동 활발

평균 4.6건 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평균 4.4건, 한국당이 평균 3.1건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정의당으로 소속 의원 5명이 15개 법안을 발의해 평균 3.0건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은 선수(選數)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로 초선에 가까울수록 법안 발의가 활발했다.

137명 초선 의원은 총 674개 법안을 발

의했다. 한 사람당 평균 4.9개를 제출한 것으로 전체 의원의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재선 의원 66명 역시 300개의 법안을 제출해 평균 4.5개의 실적을 보였다.

반면 국회의원의 선수가 늘어날수록 발의 실적은 저조했다. 평균치를 보면 3선(46명)은 2.3개, 4선(33명)은 2.5개, 5선(9명) 2.4개, 6선(5명)은 2.0개였다.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법안 1건을 제출했고, 8선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올 들어 한 건의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 출신인지 지역구 출신인지 여부와 성별로도 차이가 컸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250명이 985건으로 1인당 평균 발의 건수(3.9건)가 전체 평균을 밑돈 반면, 비례대표는 48명이 213건을 발의(평균 4.4건)해 평균보다 수치가 높았다. 또

## 10건 이상 법안 제출 26명 의료법개정안 28건 최대 조세특례 15건·도로교통14건

여성 국회의원 50명의 발의 실적은 211건으로 평균 4.2건을 기록했지만 남성 국회의원 248명의 평균치는 4.0건으로 낮았다.

다만 법안 제출 건수만으로 양질의 입법활동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이 외부 단체 등의 정황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질보다 양’을 중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

뀐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 주변의 ‘실적쌓기’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도 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법안 발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실한 입법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이 제출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8건이 제출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형사소송법(16건) △조세특례제한법(15건) △국회법(14건) △도로교통법(14건) △전기사업법(14건) △공직선거법(13건) 등 연초 불거진 이슈와 관련된 개정안이 많았다.

유충현 기자 lamuz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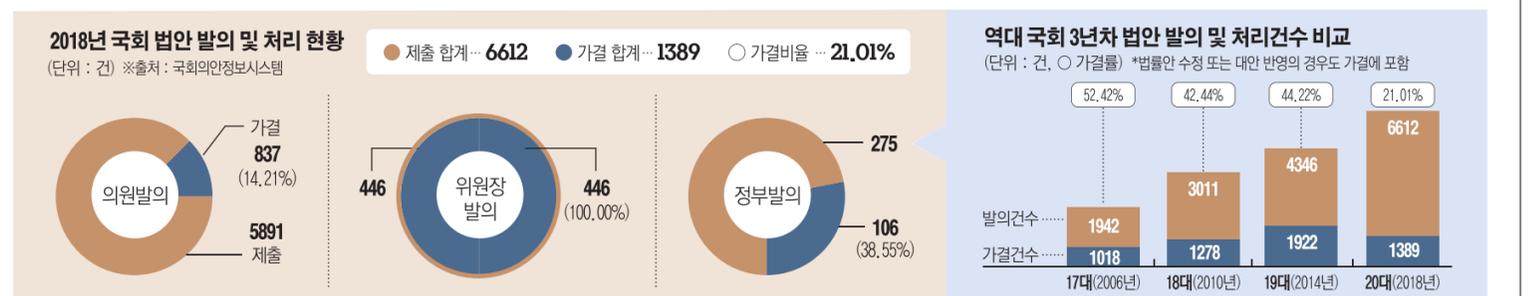
# ‘한건주의’에 지난해 발의 건수 최대...가결률 21% ‘최악’

## 6612건 중 가결 1389건 불과 법안 5건 중 4건은 계류·폐기

20대 국회 3년 차를 맞았던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6612건에 달했다. 17, 18, 19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만 법안의 건수만 늘었을 뿐 ‘품질’이 떨어지면서 실제 가결률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는 총 6612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의원 제출 법안이 5891개, 정부 제출 법안이 275개다. 여기에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각 상임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 275건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수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각 회기별 3년 차에 제출된 법안 수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15대 국회 3년 차였던 1998년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수는 614



건에 불과했지만 △17대 국회 3년 차(2006년) 1942건 △18대 국회 3년 차(2010년) 3011건 △19대 국회 3년 차(2013년) 434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6612건으로 급증했다.

발의 법안이 증가하는 동시에 버려지는 법안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15대 국회 3년 차에 발의된 법안의 가결률(법률안 수정 또는 대안 반영의 경우도 가결에 포함)은 80.29%에 달했다. 하지만 16대 국회 같은 기간에는 62.20%로 줄었고 17대 3년 차에는 52.42%, 18대 3년 차에는

42.44%, 19대 3년 차에는 44.22%로 낮아졌다.

지난해 제출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389건으로 가결률이 21.01%에 불과했다. 일부 폐기하거나 철회된 법안을 빼면 5005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처리하는 데만도 남은 회기 동안 매일 12건씩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도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발의 법안 절반 이상이 회기 종료와 함께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폐기 법안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의

원 입법 증가와 무관치 않다. 의원 입법은 동료 의원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돼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일부 의원이 실적 경쟁을 위해 ‘한건주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38.55% 가결된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은 가결률이 14.21%에 그쳤다.

지난해 압도적으로 많은 법안을 발의(총 340건)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안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227개의 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는데, 공기업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각 공기업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안에 붙여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여러 입법 형태 가운데 가결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가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경우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유사한 여러 법안을 병합해 만들어낸 방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사회적 대타협 없었다면 ‘카풀’ 전면 폐기됐을 것”

## 인터뷰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와 카카오톡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카풀 허용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합의 무효화’ 주장과 같은 반발이 이어지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타협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의를 이끌어 낸 중심에는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있었다. 감내하기 힘든 육을 먹어가며 택시단체 농성장을 150여 차례 찾은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타협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 위원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일부 업계의 반발에 대해 “카풀서비스에서 자가용 카풀은 전체 모빌리티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며 “자가용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것은 종전에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했을 뿐 규제의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풀 영업의 허용 시간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

택시 농성장 150여 차례 방문  
조금씩 신뢰 쌓아 대화 물꼬  
서로 한발 물러나 ‘원원안’ 결실

규제 혁파 통한 ‘플랫폼 택시’ 등  
다양한 국민 서비스 창출 기회

합의안 도출로 위원장 임기 마감  
업계 갈등, 상생 차원 대화할 것

시와 오후 6~8시로 하되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게 합의의 내용이다. 이에 카풀 스타트업 3사는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반발한다.

전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순 없다”면서도 “합의안이 업체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큰 의미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원원’ 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택시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약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카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엄격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안을 무효화하면 결국 규제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로라면 주거지와 출근지를 벗어난 카풀 영업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으며, 대다수 카풀 서비스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합의안을 지나치게 ‘자가용 카풀’에만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합의의 핵심은 택시 규제 혁파를 통한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국민들이 이용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새 사업을 구현해 내느냐에 따라 현 시장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안 도출로 TF 위원장 임기는 끝났다. 이제 정부의 실무적인 협의만 남았다”며 “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처하겠다. 정부와 업계 간의 조율을 돕기 위해 계속해

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구상대로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어떻게 창출되느냐에 따라 젊은 기사들도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택시단체 농성장을 150여 차례나 방문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육’을 들으며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그는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해 “처음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같았다. 120차례, 130차례 찾으며 신뢰가 쌓이자 그때서야 대화가 시작됐다”며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사안에 대해 대타협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데에 대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의 큰 의미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원원’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신기술 등장에 기존 업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한국당, 선거법 저지 대책회의 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북핵·민생’ 출구 못 찾는 靑 안보·경제팀 교체說 ‘솔솔’

文정부 출범 후 지지율 최저치  
내년 총선 악영향 우려 목소리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살얼음판을 걷는 북핵 문제와 어려운 민생 경제의 출구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대치하고 있는 데다 민생 경제도 악화일로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이유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청와대 안보·경제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4월 3일 실시되는 재보선 이후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위원장 선임·교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와대 안보·경제팀 교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의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정 실장과 김 실장의 교체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 데다 안보·경제 프레임

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이 강경 대치하면서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로 치달을 개연성도 다분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최근 ‘협상 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미 행정부의 ‘슈퍼 패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빅딜’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강대강 대결로 치달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국제 제재 틀 안에서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는 양상이다.

민생 경제 분야도 어렵기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팀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용 한파에 수출마저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울가를 국정감사 전까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위협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팀 교체설의 배경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Hanmi 한미약품  
\*광고심의번호: 2018-1455-004400

###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소프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 나인나인<sup>®</sup> 정

24h 하루 한알

【효능·효과】 • 육체피로 • 눈 건조감 완화 •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2위

지난해 1534조6310억... GDP 대비 86.1% 전년보다 2.3%p 늘어  
3분기 기준 전분기보다 0.9%p ↑ ... 中 이어 두번째로 빠른 증가세  
“집값 상승 따른 추격매수·은퇴자 생계형 자영업 대출 증가가 원인”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총량 부담은 물론 증가 속도도 여전히 빠른 모습이다.

18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 631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1782조2689억 원) 대비 86.1%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년(83.8%)보다 2.3%p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6년 60%, 2012년 70%, 2016년 80%를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BIS가 집계하는 작년 3분기 말 GDP 대

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 분기 대비 0.9%p포인트 상승한 96.9%를 기록했다. 이는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중국은 1.2%p포인트 늘어 반값이 넘는 세계 1위에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상승폭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 것 같지 않다. 총량 관리와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다 썼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베이비부세대의 은퇴가 지속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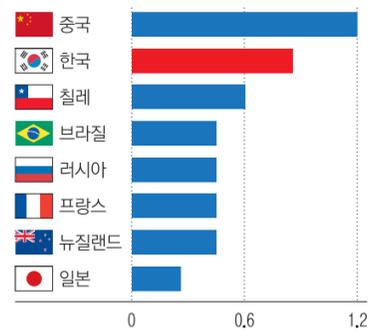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단위: 조 원, %)



서 이들의 생계형 자영업 대출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100만여 명을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증가 상위국  
(단위: %P, 2018년 3분기 기준)



대비 15.6% 늘었다. 이는 2017년(14.4% 증가)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점차 둔화하는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추

격매수와 노후 대비가 안 된 베이비부세대가 은퇴하면서 자영업 생계형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키를 쥐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인상은 어렵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도 대부분 써서 기존 정책을 양적으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와 함께 은퇴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생계형 대출 증가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정책이 아닌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이들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KOTRA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KOTRA(사장 권평오)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방문에 맞춰 15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사진은 권평오(왼쪽 두 번째) KOTRA 사장, 추운 다라(Chhuon Dara, 왼쪽 세 번째)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이 국내 참가 기업으로부터 1:1 비즈니스 상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KOTRA

〈공정거래위원장〉

## 김상조 “사외이사 선임안 보니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현대차, 이사회 개방성 확대  
주주 참여 적극적으로 수용  
삼성, 징계받은 인물 재추천  
시장 공감 얻는 노력 부족



시장의비거역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평했다.

반면 삼성그룹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

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총에서 두 회사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먼저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그룹 측과 엘리트 측의 표 대결을 전제하면서도 “현대차는 자신의 시각보다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주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는 한국 자본

시장의 비거역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평했다. 반면 삼성그룹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 등 사정은 이해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과 엘리트의 배당 이견에 대해선 “모든 의견권자문행사기관이 배당안건에 관해 회사 측에 찬성했다”며 “엘리트가 너무 무리한 카드를 내놨다고 시장에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소득주도 성장〉

## “소주성 속도조절 긍정적... 존재감 부족 한계”

‘절반 성공’ 흥남기 100일

19일 취임 100일째 맞는 흥남기(사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 쏟려왔던 1기 경제팀의 정책 무게중심을 혁신성장



장과 경제협력으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 부족은 속제로 지적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성과가 나오긴 이르지만 정책의 방향성만 큼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혁신성장정책과 경제협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

소주성→혁신성장·경제협력  
경제정책 방향성 변화 이끌어  
추경 등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트의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고, 지난달 11일 도심 수조차 충전소가 규제샌드박스 1호로 결정된 뒤 이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업종 중 17건이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해 4개 부처에서 100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최근 마련된 것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도 1월 협약식이 개최된 데 이어 투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 종전에 추진했던 정책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는 달라진 조직 분위기가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장이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과거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걸려온 관계 때문에 진전되지 않았던 정책이 많았다”며 “지금은 정부와 청와대 간 소통이 원활하고, 김 전 부총리 시절의 과한 긴장감도 사라져 업무 처리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단, 미세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없었던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성 교수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경제정책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며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그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다음달 17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서울 성동 등 4곳 테마형 스마트도시 선정

부산 수영, 충남 공주·부여, 경남 통영... 국비 2억2500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경남 통영시 등 4곳이 테마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지로 4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는 기성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해 스마트도시 우수 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4곳 지자체에 각각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통영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험 경제, 정보·

환경·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한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부산 수영구는 홍보·주차정보·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빵의 성지로 유명한 남천동은 상점별 위치·상품·출시시간 등을 알려주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스마트그늘막 벤치, 드론안전지킴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해 4계절 관광 편의 증진을 추진한다. 민락동 회센터 주변은 ‘미디어아쿠아릴’ 조성 등 활어 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일회용품으로 아픈 지구를 살리는 쉬운 방법?

igreenwegreen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쓰자

## 대한민국 아그위그 챌린지

I GREEN WE GREEN

좋아요 51,635,256개  
igreenwegreen

#아그위그챌린지 #텀블러트리 #지구살리기 #일회용품노노 #맹그로브나무기부 #쉽다쉽다 #함께해요

**실제 맹그로브 숲**  
열대우림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SNS에 #텀블러트리를 인증하고 함께할 친구를 태그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베트남 맹그로브 숲에 나무 1그루가 더해집니다



아그위그챌린지는 **SK 이노베이션**이 함께합니다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안전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아그위그챌린지 자세히 보기  
<https://skinn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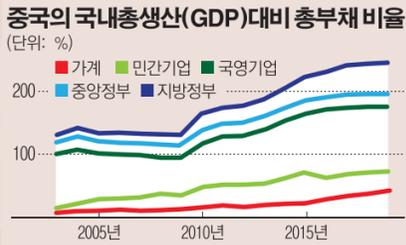
# 中 대규모 경기부양책 '세계경제 회복' 마중물 될까

### 감세·건설 등 '778兆 돈풀기' 작년 GDP比 부채비율 250% 성장모델 한계... 경제효과 의문

중국 정부가 금융당국의 부채 감축 노력, 미국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둔화하는 경기를 살리고자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동을 걸었다.

과거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중국의 부양책이 세계 경제의 새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크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전날 막을 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감세와 인프라 지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경기부양책 청



사진을 제시했다.

전날 전인대에서는 감세와 고용안정, 사회보장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담은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안이 2945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 반대표 0명으로 통과됐다.

새 부양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 등 기업을 위한 2조 위안(약 338조 원) 규모의 감세와 수수료 삭감을 단행한다.

철도 건설에 8000억 위안, 도로와 항만 등에 1조8000억 위안을 각각 투입하는 등 인프라 지출에도 막대한 돈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세와 인프라 지출 등 이번 경기부양책 규모는 4조6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말 펼쳤던 4조 위안 부양책을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10년간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과 비슷한 규모로 부양책을 펼치면 기대만큼의 효

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의 4조 위안은 당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번 부양책 규모는 현 중국 GDP의 5% 미만이다.

부양책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척도는 중국 재정지출의 적극성이다. UBS는 중국의 적자 지출은 2008-2009년에 9.6%포인트 급증했으나 올해는 작년 대비 1.8%포인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경기둔화의 심각성에도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신중한 자세로 부양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 부채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0%에 육박했다. 10년 전에는 그 비율이 150% 미만이었다. 중국 지도부는 금

융위기 당시에는 부채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어서 은행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 신용 확대를 용인할 수 있었다. 2009년 중국의 신용 증가율은 36%에 달했다.

반면 현재는 아무리 대출을 장려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중국의 신용 증가율은 약 9.5%였다. UBS는 올해 경기부양책 시행에도 증가율이 11.5%로 10년 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왕타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시대의 신용 확대에서 감세와 정부 지출 등으로 친성장 정책 초점을 전환했다"며 "그러나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감세로 얻은 이익을 지출에 쓰기보다는 유보금으로 둘 것이다. 이에 부양책 효과가 과거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차이나머니 안 받습니다”...美 학계도 불똥

### 反화웨이 정책에 산학협력도 눈치 재정·인재확보 막힌 대학 '악영향'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학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의회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에 의한 자국의 첨단기술 절취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면 '세계의 두뇌'를 자부했던 미국 대학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비난의 화살이 자국 대학과 중국 기업의 산학협력이나 늘어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그동안 중국과 밀월 관계를 돈독히 해왔던 미국 대학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메릴랜드대의 마이클 팩트 교수는 지난해 12월 화웨이로부터 "왜 우리의 돈을 돌려주는 것인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연구 목적으로 화웨이가 기부한 16만5000달러(약 1억8750만

원)를 대학 측이 반환했기 때문.

그동안 화웨이는 전 세계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화웨이는 2017년 미국 대학을 위한 연구 자금으로 약 1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문이 화웨이가 산학 제휴 파트너로 공표한 대학들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가 향후 관계 유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대학의 인력과 기업 자금을 융합하는 산학협력은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선도하는 미국 대학의 최대 강점으로 꼽혀왔다.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이나 학비의 대폭적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R&D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민간기업이 지원해왔다. 기업 측도 우수한 인재 확보 등 혜택을 봤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더 나아가 중국인 유학생 전체에 대한 비자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이슬람 사원(모스크) 인근에 설치된 추모소에서 17일(현지시간) 두 여성이 서로 껴안고 흐느끼고 있다. 호주 국적의 반(反)이민주의 남성인 15일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 2곳에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특히 범인은 이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콘텐츠 모니터링에 실패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로이터연합뉴스

## ‘총기난사’ 생중계된 폐북... “테러 창구” 못매

### 콘텐츠 모니터링한다더니... 해당 영상, 사건 발생 12시간 후에도 SNS 떠돌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테러로 세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빅테크 기업을 향하고 있다. 용의자가 벌인 끔찍했던 범행 과정 '17분'이 고스란히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이후에도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모니터링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들 플랫폼이 테러 확산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호주 국적의 브렌던 태런트는 전날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2곳을 돌아다니며 예배자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게임하듯 총격을 가하고 희생자들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든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미야 갈릭 페이스북 뉴질랜드 지사 대변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용의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다"며 "총격 사건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이슬람 사원에서 15일(현지시간) 총기난사 테러를 일으킨 범인이 총기난사 순간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AP뉴스

찬양하는 글도 발견 즉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영상이 유튜브와 트위터 등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자 해당 기업들도 계정을 삭제하고 영상을 제거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 발생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발견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불량'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플랫폼

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페이스북에서 총격과 자살 등 잔인한 영상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해진다는 이유였다.

마리안 프랭크 마이애미대학 법학교수는 "본질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생방송 콘텐츠에 대한 사전 관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다"며 "페이스북은 끔찍한 폭력 행위 조장과 확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모니터링에 대규모 인원과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럼에도 관련 사건이 반복되면서 테러 확산의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일 바수 영국 런던경찰청 대테러대책본부장은 "우리는 테러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업체와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제거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 투자자들, 보잉 주가 “추가폭락” 베풀

### 파생상품 시장서 보잉 풋옵션 거래량 20배 넘게 급증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신형기 보잉 737맥스8(이하 보잉 737)이 잇단 추락 사고에 휘말리자 전 세계가 '보잉 737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보잉 투자자들은 보잉 주가 추가 폭락에 베풀며 파생상품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전했다.

FT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보잉 풋옵션은 일일 평균 거래량의 20배인 23만7000건으로 급증했다"며 "보잉 주식의 추가 10% 하락에 대한 헤지 비용은 거의 2배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10일 추락한 이후 지금까지 보잉 주가는 약 13% 급락했다.

투자 리서치 업체 모닝스타의 크리스 힌스 항공우주산업 애널리스트는 "보잉은 올해 중반까지 보잉 737의 생산량을 월 52대에서 57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으로선 생산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737 운항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즈 비커스 보잉 대변인은 "14일 미 연방항공청(FAA)의 일시적 운항 금지 지시에 따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생산한

보잉 737의 고객사 인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잠재적 사용 제한이 제조 공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는 동안 보잉 737의 조립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월 52대 수준의 생산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코헨워싱턴리서치그룹은 "보잉이 인도를 한 달 중단하면 매출에서 약 18억 달러(약 2조476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잉은 항공기를 인도할 때 항공기 가격의 약 60%를 인도 비용으로 받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애널리스트로널드 앤스테인은 "보잉 737을 지상에 묶어두는 대가로 보잉이 각국 항공사에 렌탈 비용으로 물어야 할 돈이 1분기에 5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에 실린 보잉 737의 블랙박스 조사 중인 만큼 보잉 주가에 대해 일정 정도 매수 등급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잉이 일단 보잉 737 기체에 문제를 확인한 이상 그것을 수리하고 검증하는 데 3-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파운데이션〉

# “인생파데 찾았다”... 美 여심 사로잡은 ‘亞 뷰티’

아시아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스킨케어 제품과 피부관리 방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미용 분야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양인 피부비결은? 韓·日 인기제품 덕에 화장품 업계 르네상스 美 뷰티시장 16% 성장

WSJ에 따르면 미국 월가 출신인 대만계 미국인 비키 차이는 10년 전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 ‘타차(Tatcha)’를 설립했다. 일본의 옛날 연예인을 일컫는 이른바 ‘게이샤’들이 수 세기 동안 이어온 피부 트러블 관리 비법을 소개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타차의 세안 오일과 보습 크림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작년 타차의 매출은 전년보다 80% 이상 늘어나 1억2500만 달러를 넘었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점 세포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킨케어 3개 브랜드 중 하나에 올랐고, 홈쇼핑 대기업 QVC에서도 톱5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출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완판됐고, 작년 9월 출시된 나이트윙립 마스크는 입고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

WSJ는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타차가 스킨케어 제품으로 돈도 벌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불쏘시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NPD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인기 제품 덕에 미국에서 스킨케어 제품 매출은

지난 1년간 약 15% 성장했다. 메이크업 제품 매출 신장률이 3%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에스티로더와 로레알 등 글로벌 화장품 대기업에도 스킨케어는 성장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으며, 드링크 엘리펀트나 선데이 라일리 같은 신흥 브랜드들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타차는 일본의 화학자와 원료 개발을 시작, 기름종이를 가장 먼저 출시하고, 다음에 세안제와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제품 라인을 넓혔다. 차이 대표는 “당시 미국 미용업계는 아시아 제품이 미국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지 회의적이었다”며 “처음 몇 년은 계속 소매점으로부터 거절만 당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다가 타차의 성공에 힘을 실어준 건 ‘K뷰티’의 힘이었다. K뷰티란 한국의 미용 산업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현상을 말한다. ‘BB크림’이라 불리는 피부 커버 제품에서부터 스펀지에 액상 파운데이션을 적신 쿠션 파운데이션, 발림이 가벼운 에센스 세럼, 화장수를 적신 시트 마스크 등 한국 제품이 잇따라 인기를 끌었다. 거기에 미니멀리스트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한 일

본의 미용 트렌드, J뷰티의 출현으로 아시아 제품 인기는 절정을 맞았다.

NPD에 따르면 작년 1~9월 일본계 화장품 매출은 19%, 한국계 화장품 매출은 39% 각각 늘었다. 스킨케어 제품 전체 성장률은 16%가 넘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한 아시아계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일본 시세이도가 1위다. 시세이도는 미국에 진출한 지 50년이 넘었다.

시세이도 메이크업의 글로벌 개발 총괄 질 스킨케어 사장은 “우리에게 르네상스다. 사람들은 아시아 미용 세계를 탐구하고 있고, 우리는 선구자로서 혜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이도의 미국 사업은 현재 총매출의 약 12%를 차지, 아시아 이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미국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 로더도 아시아계 기업들 못지않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크리닉’ 브랜드로 신제품 출시는 물론 ‘DECIM(데시엠)’과 페이스 마스크로 잘 알려진 한국 ‘Dr. Jart+(닥터 자르트)’에도 투자하고 있다. 프락터앤갬블(P&G)은 일본 브랜드 ‘SK-II(에스케이투)’가 지난 분기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마스크팩’ 하나로 아주 짧은 기간에 국내 화장품 재벌에 등극한 이들이 있다. 바로 GP클럽의 김정웅 대표(44)와 카버코리아 이상록 대표(45)가 그 주인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피부 수분 공급과 각질 제거, 피부 정돈 등을 내세운 마스크팩으로 전 세계적 ‘피부 미인’ 열풍을 일으키며 놀라운 부를 축적한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최근 조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외 투자기관의 눈에 들어 거부를 축적했다는 점이다. 통신에 따르면 김 대표가 이끄는 GP클럽은 작년 10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골드만삭스는 GP클럽 지분 5%를 6700만 달러

## 억만장자 반열 오른 ‘K뷰티’ 창업자들

GP클럽, 골드만삭스서 6700만 달러 투자 유치  
카버코리아, 유니레버서 22.7억 유로 투자받아

(약 756억 원)에 확보, 기업가치가 13억 달러로 뛰었다. 나머지 95%의 지분은 김 대표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끄는 스킨케어 제품 전문업체 카버코리아는 2017년에 영국·네덜란드계 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의 눈에 띄었다. 당시 유니레버는 22억7000만 유로를 투자해 골드만삭스와 베인캐피탈, 창업자 이상록 씨가 가진 지분을 대부분

사들였다. 이에 이 씨의 재산은 9억 달러로 늘었다.

GP클럽의 김 대표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다가 2016년 JM솔루션을 설립했다. 창업 초기, 회사는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장터 ‘타오바오’에서 인기를 끌며 승승장구했다. 2017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지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거세지자 한국 미



GP클럽 김정웅 대표



카버코리아 이상록 대표

용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상대적으로 작고 새로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활용해 반(反)한류를 극복했다.

GP클럽의 저가 전략은 중국 본토에서 되팔 목적으로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보따리상들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덕분에 GP클럽의 작년 1~6월 매출은 3000억 원으로 2017년 전체 매출인 500억 원에서 급격히 확대했다. 그것이 골드만삭스의 관심을 끈 비결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한 대(代)에 부를 쌓은 자산가가 드물다며 이들 화장품 부호에 주목했다. 한국은 재벌들이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 후발 주자들이 침투할 여지가 적지만 미용업계는 예외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의 억만장자지수에서 세계 500대 부호에 오른 한국인 7명 중 자수성가한 사람은 2명뿐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www.childfund.or.kr

#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 행안부, 박차훈 회장 ‘연봉 셀프 인상’ 제동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시정 명령 통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사실상 “박차훈 회장의 연봉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회장의 급여에 대해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소극적인 태도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행안부가 이번 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놓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본지 3월 8일자 8면 참조>

17일 금융권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박차훈 회장의 연봉 인상안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라 건전한 운영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은 이사회가 회장의 연봉을 다시 책정하라는 것으로, 박차훈 회장의 연봉 삭감은 불가피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

## 건전성 저해 우려 관리·감독 나서 회장 연봉 재책정... 삭감 불가피 김부겸 장관 ‘명예직 취지 벗어나’

회 관계자는 “(회장 연봉 수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박차훈 회장의 올해 연봉을 전년(4억8000만 원)보다 50% 인상한 7억2000만 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상임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차훈 회장은 이 법이 적용된 후에 당선된 최초의 비상임 회장이다. 회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당’ 명목으로 일부 임금을 책정한다. 편법 지급인 셈이다.

행안부는 회장의 연봉 수준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은 ‘명예직’이라는 법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의 “비상임으로 되면서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인데, 절반 정도 줄어든 중앙회장의 연봉이 원복됐다”라는 질의에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비상임 취지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기적인 감사를 제외하고 행안부가 중앙회에 시정 명령을 통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새마을금고 역시 ‘사금융기관’이라는 인식 탓이다.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속해서 법을 개정해도 새마을금고 사건·사고는 반복됐다. 특히나 중앙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퇴려 이번 연봉 인상을 통해 더욱 드러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안부로서 이를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시에 박차훈 회장의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 협상안 거부당한 신창재 “FI, 중재 신청 예고 유감”

“TPO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은 회사 운명 걸린 불가피한 대응 진지하게 재협상 임해주길”



FI연합은 신 회장 측에 자본처리(엑시트) 방법과 가격, 납입기일 등을 요구했다. 데드라인은 18일이다. 앞서 신 회장이 제시한 △ABS 발행 통한 유동화 △FI 자본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막판 협의마저 불발되면 FI연합은 곧바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재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신 회장은 17일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교보를 지키고 기업공개(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보생명에는 500만 명 가입자, 4000명의 임직원, 1만6000명의 컨설턴트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에 따라 그들의 미래, 회사의 미래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동안 IPO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연한 자본회중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만큼,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상황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무적 투자자들도 교보의 대주주들이시니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피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이뤄진

서 신 회장이 제시한 △ABS 발행 통한 유동화 △FI 자본 제3자 매각 △IPO 후 차익 보전 등 3가지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막판 협의마저 불발되면 FI연합은 곧바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재 결과는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결과가 나오면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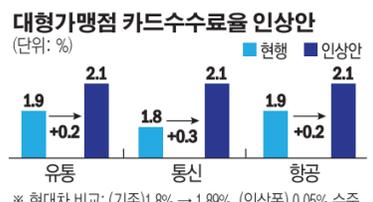
업계 관계자들은 FI연합이 중재를 신청하면 교보생명은 주주 간 계약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소송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먼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들고 있던 지분 24%를 FI연합에 넘기는 과정에서 제3자인 신 회장의 풋옵션 조항이 포함된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IPO는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개인인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FI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해 IPO 연기에 동의해 놓고 이제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 소송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상장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카드사, 통신·유통사 수수료 협상 자신감 결제 제약 댄 고객 이탈 우려... 현대차와 달리 가맹 해지 없을 듯

카드사가 현대자동차와 수수료를 인상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남은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은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도 수수료를 협상 과정 조기 점검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나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앞서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유통업과 통신사, 항공사 등과 동등한 협상력을 갖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카드 결제가 단 하루라도 중단되면 매출 타격을 물론 고객 민원으로 소비자 신뢰도까지 잃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현대차처럼 ‘가맹



해지’ 같은 강수를 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카드사 대형가맹점 협상 전망 리포트에선 “계약 해지로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면 다른 유통업체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대형 유통업체도 상당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 70<sup>th</sup>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교보증권

#### 창립 70주년

**로보서비스 무료이벤트**

로보서비스(투자자의달인, 파보, 스톡북) 이용무료  
\* 로보서비스만 참여가능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교보증권 기존 및 신규고객

**신용공여이자율 혜택이벤트**

신용공여이자율 연 4.9%, 담보대출이자율 연 5.5%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 고객(비회원 계약개설 전)

**해외주식 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이벤트**

해외담보대출 연 4.1%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기간에 발생한 담보 대출건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인하이벤트**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미국 0.15%, 홍콩 0.2%, 중국 0.2% 적용  
기간: 2019.01.01-2019.12.31  
대상: 이벤트 수수료 적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대상: 이벤트 기간에 비회원 또는 은행연계 해설을 이용하여 해외주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신규종합계좌에 한함)

###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교보증권은 금융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적정 담보비를 미달 시 기간 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휴전이 임해 차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는 투자 한도, 거래시간, 대외환율 등 국내 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 할 시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대세 시 0.014%)의 주식매매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이후 1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신규계좌연입 해지 후 3개월 단위로 적용되는 한 시점 0.03%로 변경)이며 최소수수료는 미국 30USD, 홍콩 3000HKD, 중국 1000CNY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조건 및 상세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벤트 적용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은 자동이체로 진행되며, 이월금도 자동이체로 진행됩니다.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에서 고객에게 맞는 투자는 수익담보를 보지 않습니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나의 유일한 슬픔은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일본군의 총칼에 맞서며  
대한독립을 외쳤던 이름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 하고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등진 이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그 뜨거운 이름  
유관순 열사

100년이 지난 오늘  
그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02.12.16 - 1920.9.28 **유관순**

천안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이화여당 1학년이던 1919년에 3.1 운동이 벌어지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20일 동안 약 3,0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 아우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옥중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자비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8살의 나이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자료제공처: 유관순열사기념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파리비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티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 반도체만의 위기 아니다...IT 수출 6년 전부터 빨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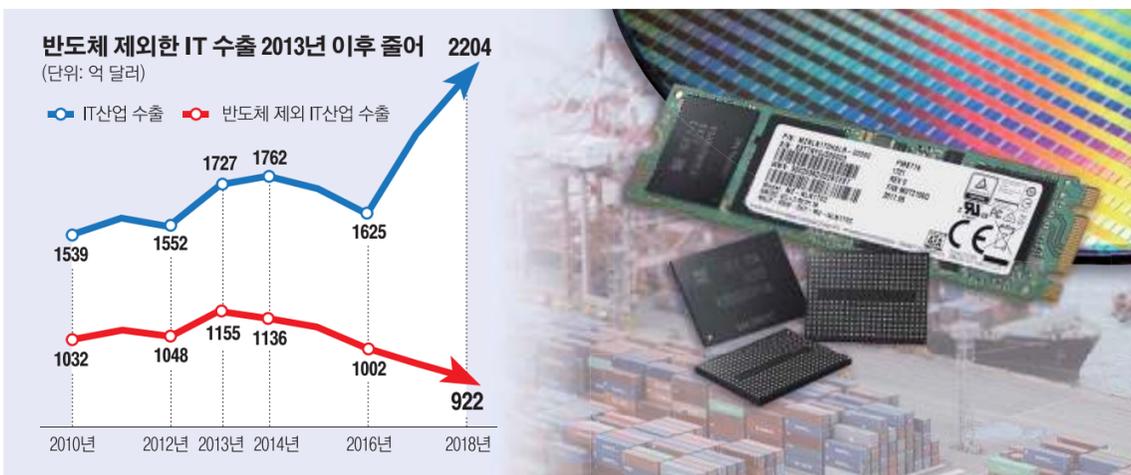
## ‘IT 코리아’ 붕괴 조짐

우리나라의 ‘수출 버팀목’인 IT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 반도체 슈퍼 호황에 LCD와 OLED, 휴대전화 등 주력 IT산업의 하락세가 가려져 있었지만,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자 전체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수출입통계’를 이용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수출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T수출액이 2013년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이고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IT산업은 2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이었다. IT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2%, 2005년 37%, 2018년 36%으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출액 역시 1996년 41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호황세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해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쪼그라



## 1200억 달러서 900억 달러로 반도체 제외한 IT 수출 감소세

## “IT산업 이끌 차기 유망주 없어 한국 제조업 기반 이탈 경고등”

다. 2013년 115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을 걷는 상황인 셈이다.

IT산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편 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IT산업은 △전자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정보통신 응용기기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부문의 IT산업 수출 비중 합계가 1996년 54%에서 작년 25%로 반토막 났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차기 IT산업을 이끌어 갈 뚜렷한 유망 수출품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IT산업 주력제품 중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당수 제품의 수출액이 수년 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LCD, OLED 등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3년 393억 달러로 총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제품이었으나 작년 278억 달러까지 하락했다. 휴대전화

수출액은 지난해 146억 달러로 최근 3년 새 반토막이 났다.

이 같은 IT산업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으로 붕괴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 8.4%로 감소 전환한 이후 하락폭을 키우며 20% 넘게 감소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올해 1월 2.6% 감소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2월 20일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가 3.0% 감소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수출의 73.4%(2018년)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4.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한국경제연구원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 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최근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존의 대책과 비슷해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제조 기반을 되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캐주얼로 갈아입은 현대차, 팀 이름도 바꿔요

### 경영지원팀→워크앤라이프팀 하반기 조직개편 이후 본격화

임직원의 근무 복장을 ‘완전 자율복’ 형태로 바꾼 현대자동차가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별 명칭도 새롭게 변경한다.

17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달 들어 근무 복장을 자율복 형태로 바꾼 이후 부서별 명칭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하반기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로 전환하며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후 △본부 산하 △사업부 △실의 명칭은 유지하되 이하 조직

인 팀은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직개편이 진행되면서 실무팀 명칭을 부서 특성과 현황에 맞게 교체 중”이라며 “현재 △본부→△사업부→△실→△팀 체제 가운데 실무팀의 명칭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일부 조직을 중심으로 팀 이름을 바꾸고 있다. 예컨대 경영지원팀은 ‘워크앤라이프팀(Work & Life)팀’으로, 사내문화홍보팀은 ‘온드미디어(Owned Media)팀’ 등으로 교체했다.

이 같은 팀 명칭은 지난해 하반기 조

직개편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앞서 6개 본부(△경영지원 △재경 △국내영업 △고객경험 △사업관리 △상용사업)로 구성된 조직은 올해 8개 본부(△기업전략 △북미권역 △유럽권역 △인도권역 △러시아권역 △중남미권역 △아태권역 △아중동권역)가 추가돼 총 14개로 세분화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체 부서 명칭이 일괄 개편되는 게 아닌, 업무 특성이 팀 이름이 맞지 않거나 중점 업무와 무관한 경우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부르기 편하면서 글로벌 경영 현황에 맞는 것은 물론, 실제 담당업무에 맞게끔 본

부 산하 조직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직급 명칭(대리→과장→차장→부장) 전환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대대적 조직 변경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은 2017년 6월 코나 출시 행사에서 청바지와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보다 더 ICT 회사답게 변화해야 한다”며 혁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美 경제 제재에 묶인 SK네트웍스 이란법인 설립 후 1년 ‘인맥 사업’

SK네트웍스가 트레이딩 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이란 현지법인이 미국의 ‘경제 제재 재추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월 이란 및 중동 시장 확대에 대비, 철강·화학 등 무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법인 ‘네트웍스 테자라트 파스(Networks Tejarat Pars)’를 이란에 설립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중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사업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이란 지사를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복병을 만났다. 바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재추진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고 수입국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시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5명 내외의 현지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나아가 현지 대외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란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을 비롯한 중동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설립한 법인”이라며 “사업 환경에 따라 단번에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란 현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 사업을 위한 관찰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사업부문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기에, 사업의 확대·축소는 수시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변호선 기자 hsbun@

### 한진칼 “KCGI 안전 빨 수도” 29일 주총 앞두고 날선 공방

한진칼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진칼은 17일 KCGI의 주주권 침해 주장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전

으로 상정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안전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CGI는 15일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고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청을 거부하는 등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한 것”이라며 “이는 적법한 경영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KCGI 측이 이에 대해 “주주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자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사회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진칼은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LG디스플레이, 중국서 OLED TV 대세 몰이

### 광저우 공장 하반기 가동 앞뒀 하이센스 등과 ‘파트너스 데이’ “中, OLED 패널 제2생산기지”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최대 TV 시장인 중국에서 OLED TV 대세 몰이해 나갔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더블트리 힐튼호텔에서 ‘2019 OLED 파트너스 데이(OLED Partner’s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5일 열린 행사에는 LG전자·스카이워스·콩카·장흥·하이센스·소니·필립스 등 TV 제조사와 수닝·징둥닷컴 등 유통업체, 시장협회·전자상회 및 업계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OLED의 성과와 가치,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중국 OLED시장의 빠른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선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시장조사기관 AVC의 둥민(董敏) 흑색 가전 부총재는 이날 초청 발표에서 “중국 프리미엄 TV 시장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며 “중국 TV 제조사들이 OLED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움에 따라 OLED TV는 프리미



오창호(앞줄 오른쪽 7번째)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부사장) 류탕즈(“ 6번째)스카이워스 총재, 오아빈(“ 8번째) 중국전자시상업계협회 비서장, 여상덕(“ 9번째) LG디스플레이 고문 등이 ‘2019 OLED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엄 시장에서 더욱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체 TV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TV 시장은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첨단 기술의 수용도 높은 지역으로 OLED TV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2019년 중국 OLED TV 시장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며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생산량도 현재 광저우에 짓고 있는 8.5세대 OLED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가동되면,

현재 월 7만 장(유리기판 투입 기준)에서 월 13만 장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이센스와 스카이워스 등 중국의 주요 TV 제조사들은 앞으로 더욱 안정적 패널 공급과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오창호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OLED 중국 시장 전략 발표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디스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LCD에서 OLED로의 체질 개선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은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제2의 핵심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플랫폼 노동자, 틀에 박힌 지원보다 창의적 지원을”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⑭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6000명 가사 도우미, 가정과 연결해주는 모바일앱 서비스  
고용·산재보험 가입보다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 도움 원해  
유연근무 통해 '평생직장' ... 서비스 교육으로 경쟁력 키워

'플랫폼 노동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로 일자리를 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그 범주와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 문제는 전 세계적 논의 주제로 떠올랐고, 올해 1월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성격을 띤 연대 조직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했다.

한국 플랫폼 노동시장은 음식배달, 택시서비스, 홈서비스, 대리운전, 택시호출(카카오 앱) 등으로 대표되는 O2O 서비스 시장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만큼 O2O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의 고민도 깊다. 2017년 3월 가사도우미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청소연구소' 서비스를 출시한 연현주(41) 생활연구소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6000여

명의 가사도우미(매니저)와 가정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음을 연 대표는 매 순간 느끼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란 무엇인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생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나 들어보았다.

청소연구소는 가사 도우미와 청소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연결하는 모바일 앱이다. 누적 이용자 수가 20만 명에 달하며 6000여 명의 가사 도우미를 가정으로 중개해주고 있다.

다음, 엔씨소프트를 거쳐 2012년 카카오에 입사한 연 대표는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O2O 홈서비스 사업부장으로 일하던 중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현지 관계자는 "베이징 사람 60%가 앱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 대표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리에서 만난 현지인 모두 그 관계자의 말처럼 앱으로 홈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가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연 대표는 "생활 밀착형 홈 서비스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 뒤 카카오의 O2O 홈서비스 사업 계획이 좌초되고, 연 대표는 2016년 말 카카오 직원 5명과 함께 회사를 나와 생활연구소를 설립했다. 17일 기준 누적 투자액은 35억 원이며, 올해 확정된 투자금은 65억 원이다.

6000명의 가사 도우미를 일일이 면접한 연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데 관한 소회

다. 그는 "저희 플랫폼만 해도 평균 연령 52세로 대부분 중년 여성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4대 보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할지 모르겠다"며 "틀에 박힌 지원보다 교육비 지원 같은 창의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가사 도우미들의 고용 안정이 높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연 대표도 공감했다. 예컨대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생활연구소는 이들에게 재직증명서를 떼어줄 수 있다.

하지만 연 대표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유연한 근무환경일

것"이라며 "평생직장이 되려면 유연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13세 쌍둥이, 9세 아들을 둔 세 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그는 대부분 워킹맘인 도우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딸이 아이를 낳아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됐다고 말한 도우미 직원이 있었다"며 "3개월 뒤에 다시 일하시라고 했더니 '평생직장이 여기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연 대표는 청소연구소 서비스에 관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가사도우미 O2O 플랫폼이 넘쳐나는 가운데 청소연구소는 '교육'에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에 총 5곳의 교육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사 도우미분들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며 "센터를 이케아 쇼룸처럼 꾸며놓았는데 '살림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는 도우미분들도 한번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학구열을 불태우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시장 전망도 밝다. 연 대표에 따르면 홈 O2O 시장은 한 해 10조 원가량으로 모바일 O2O 시장보다도 크다고 주장한다. 그는 "예전에는 집에서 빨래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게 당연해졌다. 향후 집 청소도 서비스를 맡기는 게 당연해질 것"이라며 "이 추세라면 2-3년 안에 기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AI가 CCTV영상 분석 침입자 잡아낸다

사람의 눈으로 보듯 얼굴과 객체를 완벽히 인식해 내는 SK(주) C&C의 '비전(Vision) AI', 에이든(AIDEN)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주) C&C의 '에이든' 중 가장 먼저 선보인 '얼굴 인식 서비스(FRS·Face Recognition Solution)'는 특허로 등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엔진 기반의 서비스다. 딥러닝과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지원해 얼굴 인식 수에 제한이 없다.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의 장점은 웹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연동은 물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CTV를 보유한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CCTV관제 요원이 모든 CCTV 영상 녹화 파일을 일일이 눈으로 살펴보고 찾아야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찾고자 하는 사람의 동선 파악도 어려웠다. 반면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는 사이트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등록한 후 CCTV 영상 파

SK C&C, 얼굴 인식 서비스  
수분 내 사람 찾고 동선 알려줘  
매장 방문 고객 맞춤 이벤트  
보안·마케팅 분야 활용도 높아

일만 업로드하면 수분 내 영상 속에서 사람을 찾아 주고 시간별 동선도 알려 준다.

인식도는 사람 눈보다 우수하다. 실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는 사진 하나만으로 얼굴을 완벽하게 인식해 낸다. 사진 속 얼굴을 3D모델로 변환, 다양한 각도의 얼굴을 가상으로 생성해 고개를 숙이는 등 얼굴 정면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얼굴을 정확히 인식한다.

얼굴인식 서비스는 기업 보안이나 마케팅, 금융 서비스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기업이나 주요 보안 시설물에서 사용한 '얼굴 인식 출입 관리'는 물론 건물 내·외부의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침입자 감지 및 추적 체제'도 구현할 수 있다. 매장 관리 및 마케팅 측면에서도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매장 방문 고객 맞춤형

이벤트·프로모션 ▲고객 선호 메뉴 추천·주문·결제 ▲얼굴 인증을 통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얼굴인식 서비스 외 객체인식 서비스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SK(주) C&C '에이든'은 사람·동물·가구·운송 수단 등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80여 개의 객체 정보도 사전 등록해 놨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계산대에서의 상품 자동 인식 및 셀프 결제 서비스 ▲상품 진열 선반의 상품 수량 변동 감지 및 자동 발주 서비스 ▲차량 혼잡도 분석을 통한 차량 대기 현황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속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드론 촬영 영상을 통한 시설 점검, 자동차·선박 수량 감지, 도로의 파손 상태, 자동 관리 등의 공공·제조·건설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폐수 내의 세균 종류 파악·개체 수 관리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분야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SK(주) C&C의 인공지능 에이브릴 포털에 접속해 법인 회원 가입 후 솔루션 및 API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김우람 기자 hura@

## 이승행 前 미드레이트 대표

###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 위한 소셜임팩트 크라우드 펀딩 준비”

학력위조 논란 부끄럽고 죄송  
업계 발전에 보탬되도록 노력

P2P(개인 간) 금융업계는 지난해 몸살을 앓았다. 유사수신 행위, 횡령, 사기 사례가 빈번했고,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에 착수했다.

작년 2월까지 초대 P2P금융협회장을 지낸 이승행(사진) 전 미드레이트 대표도 세간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내렸다. 지난해 4월 불거진 학력 위조 논란 탓이다.

이 전 대표의 학력 위조 논란 이후 협회는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해 업계를 추스르고자 노력했으나 선출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했다.

또한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기업들의 이탈이 이어졌고, 마켓플레이스렌딩협회가 출범해 부동산 대출 중심의 한국P2P금융협회와 둘로 나뉘었다. 17일 이승행 전 대표를 만나 그간의 속사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유명인이 아닌 저의 학력이 잘못 알려진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어리석었고, 부끄럽다"고 털어놨다. 이어 "산업이 성장통을 겪는 와중에 업계 대표들의 노력이 찬물을 끼얹어 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활동 중단 뒤 협회가 갈라지는 것을 지켜본 소회를 묻자 그는 "제 잘못이 크다"면서 "다만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분화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산업 규모도 작고, 업체도 많지 않아 하나의 우산 아래 모였으나 처음부터 신용이나



부동산이 집중하는 고객층은 서로 달랐다는 뜻이다.

그가 이끌었던 미드레이트는 처음에 신용대출에서 출발해 부동산 미술품, 부동산, 흡소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신용대출 영역에 이미 8 퍼센트, 렌트 등의 선발 주자가 상대적으로 방대한 중금리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해 후발기업으로 뛰어들었기에 현실적인 벽을 절감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분야를 넓힌 이유로 '국내 금융 규제'도 꼽았다. 그는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은 사잇돌 등에 대거 투입됐으나 이는 기존 금융기관에 집중됐고, 핀테크스타트업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며 "여기에 규제까지 겹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나마 올해는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될 조짐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P2P 대출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최근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셜임팩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의욕만 앞서 제 역량과 비교해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조용히 업계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내실 다지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과기부 '스마트 미디어 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 공모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대학연구소에서 나온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대상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미디어 기술개발 사업화(R&BD)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를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스마트 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됐다. 선정된 과제는 연간 최대 5억 원(품목 지정 5억 원, 자유공모 2억 원)의 기술

개발비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처음으로 여러 중소기업 간 공동개발이 필요한 2개 품목을 지정·공모한다. 연간 각각 5억 원 규모로 R&D 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폭넓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사업계획서, 연구개발(R&D) 결과물 등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주문 받으면 로봇이 7분내 포장” 롯데슈퍼, 스마트 물류센터 가동

롯데 오토프레스의 의왕센터 출하·피킹 건수 두 배로 속 온라인 물류환경 변화 대응



롯데 오토프레스 의왕센터는 주문을 받고 포장까지 7분 안에 이뤄지는 고효율 창고관리 시스템인 'GTP(Goods-To-Person) 피킹 시스템' 도입했다. 사진은 오토프레스 로봇이 상온상품을 바구니에 담는 모습. 사진제공 롯데쇼핑

롯데슈퍼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로봇이 찾아 배송 바구니에 담아 포장하기까지 7분 내에 가능한 온라인 전용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경기도 의왕시에서 정식 가동하는 '롯데 오토프레스 의왕센터'는 온라인 전용 배송시스템에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2세대 스마트 물류센터다.

롯데 오토프레스 의왕센터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및 과천의왕간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수대로, 안양판교로 등 5개의 주요 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지인 의왕시에 전용면적 602평(1990㎡), 영업면적 456평(1507㎡) 규모로 마련됐다.

고객이 물건을 주문하는 즉시 센터 안에 있는 로봇이 상온상품을 바구니에 담는다. 바구니를 컨베이어벨트에 실으면 이후 근무 직원들이 냉동상품과 신선상품 등을 순차적으로 담는다. 주문에서 포장까지 7분 안에 이뤄진다.

노르웨이의 물류전문 업체인 하테랜드사에서 개발하고, 유럽 온라인마켓의 강자인 오키아(OKADO)사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 소형 상품 저장 및 관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업체에 맞는 물류

센터로 설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토프레스' 안에는 총 3000여 개의 상온상품이 약 7200개의 상품 보관 상자(B-in)에 나뉘어 있으며 총 19대의 운반 전용 로봇이 초속 3.1m로 쉼 없이 움직여 실시간으로 상품의 입고출고를 관리하고 있어 미래의 물류센터를 연상케 한다.

중전에 운영하던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보다 출하 가능 규모 및 피킹(상품 선별 후 배송 바구니까지 담는 과정) 건수가 두 배 이상 높다. 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롯데는 주문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향상되는 등 온라인 경쟁력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왕센터는 군포, 수원, 안양 등 경기도

남부 권역 17개 점포의 온라인 주문을 담당하게 되며, 롯데슈퍼는 올해 안에 4개 센터에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추가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상온상품 외에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냉동·냉장 상품이나 신선상품까지 로봇이 담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강종현 롯데슈퍼 대표는 "온라인 쇼핑 사업 성장세에 따른 기존 오프라인 배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향후 온라인 주문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오토프레스 센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매출부진’ 패션가, 휠라 따라하기

주 소비자 10~20대로 맞춰 ‘아재’ 이미지 벗고 부활한 휠라 벤치마킹해 ‘영 타깃’ 라인 출시



TBJ 트랙셋업을 입은 유선호(왼쪽부터), 오늘의하늘, 라이관린. 사진제공 TBJ

매출 부진에 허덕이는 패션업체가 '10대 소비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수년째 뒷걸음질치고 있는 국내 패션 시장은 지난해 42조4300억 원으로 전년(42조4704억 원) 대비 소폭 역성장했다. 시장이 쪼그라들자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빅데이터로 수요를 예측해 제품을 출시하며 타개책을 모색하던 패션업체가 최근에는 10대 소비자를 공략하며 브랜드 주 고객층의 연령대를 낮추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벼랑 끝에서 부활한 '휠라'의 전략과 닮아 있다. '아재' 이미지로 내리막길을 걷던 휠라는 주 고객층을 30~40대에서 10~20대로 바꾸기로 하고 2016년 브랜드를 재단장했다. 휠라는 우선 10~20대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했고, 판매 채널도 이들 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춰 다양화했다. 또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의 입맛에 맞게 온라인 단독 제품을 선보이며 신제품 출시 주기를 앞당겼다.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휠라 사례를 벤치마킹해 10대를 겨냥한 제품 출시 및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패션 브랜드 TBJ는 10~20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서브 라인인 '어드밴스드 라인'을 출시했다. 어드밴스드 라인은 10대 취향에 맞춰 로고나 컬러 배색을 포인트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올해 봄·여름 시즌 광고 모델로 1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오늘의하늘'과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의 '라이관린' 등을 발탁했다.

루이까뜨는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 'SBBS' 백을 새로 출시하며 기존 장미 문양 로고가 아닌 LQ 장식의 로고를 선보였다. 루이까뜨 관계자는 "차세대 패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영 타깃'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심플하고 유니크한 로고로 제품에 포인트를 줬다"고 말했다.

프로스펙스는 지난해 9월 10대층을 겨냥한 오리지널 스타크 라인을 출시해 4개월 만에 2만 쪽 이상 판매했다. 아디다스 역시 지난해 8월 어글리 슈즈 YUNG-96, 오리지널 라인의 팔콘을 선보였다.

박미선 기자 only@



## 국내서 즐기는 프로방스의 봄

현대백화점은 본격적인 봄을 맞아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프랑스를 테마로 한 '프로방스의 정원'을 진행한다. 17일 밝혔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프랑스 남부 지방의 중심가 미라보 거리를 콘셉트로 라벤더와 와인·빵 등을 이용해 연출했다. 행사장에서는 프랑스 명품 도자기 브랜드 하빌랜드의 인기 상품인 마담 머그컵 2인 세트(10만 원), 천연 비누 브랜드 사본느리 비누(1만2000원) 등 다양한 프랑스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 와인 브랜드 에노테카에서 방문 고객에게 프랑스 와인 무료 시음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홈플러스 '쇼핑하라 2019' 1000만 고객 돌파

매일 72만 방문...평균 매출 13%↑

유통 업계에 고객 1000만 명이 다녀간 할인 행사가 탄생했다.

홈플러스는 창립 22주년 기념으로 진행 중인 '쇼핑하라 2019' 행사 이용 고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1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의 15일까지 방문객 수는 총 약 108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72만 명이 홈플러스를 방문한 것으로 지난해 일평균 방문객 수보다 16% 늘어난 수치다. 행사 기간 주 평균 매출액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주 평균 매출에 비해 13% 증가했다.

특히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파격적인 고가 할인전 '고기 대방출 1탄' 행사에도 많은 고객이 찾으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먼저 소고기 상품은 초이스등급 찜갈비(미국산) 32톤, 초이스등급 부채살(미국산)

19톤, 적아이를(호주산) 32톤 등 수입 소고기 가격이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도 '두마리 생닭(500g·2마리)'은 약 3만5000봉이 팔려 7만여 마리의 닭이 고객 밥상에 올랐고, 부산 생물 고등어는 준비 물량 5만 마리가 완판됐다.

홈플러스는 이같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특별 할인을 이어간다. 매주 파격가에 판매하는 '쇼킹 특가' 상품으로 성주 꿀 참외 1봉(2kg 내외)을 20일까지 9990원에 판매한다.

또한 △대용량 씨없는 청포도(질레산, 1.8kg 내외) 9990원 △필립스 무선 주전자(HD9352/80) 3만7500원(50% 할인) 등의 상품도 마련했다.

이장수 홈플러스 마케팅총괄부장은 "행사가 끝나는 27일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글로벌 뷰티 공룡’ 세포라 국내 상륙 예고

글로벌 판권 규모에 관심...업계 “국내 직구시장 활성화에 시장 안착 의문”

## 4분기 한국 매장 오픈

글로벌 1위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가 연내 한국 상륙을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뷰티 공룡'의 한국 시장 진출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세포라는 한국법인의 인사 담당자 모집공고를 낸 데 이어 올해 4분기 국내에서 매장 오픈을 예고했다.

국내 H&B(헬스앤뷰티)숍 시장 규모가 2010년 2000억 원대에서 2017년 1조7000억 원대로 7년 사이 8.5배가량 성장한 가운데 CJ의 올리브영을 필두로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한 편집숍이 하나둘 자리 잡았다.

1970년 프랑스에서 문을 연 세포라는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보유한 세계 1위 업체다. 현재 33개국에 2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30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 판권을 확보했고, 500여 종의 자체상표(PB) 제품을 판매 중이다. 이에 따라 급성장해온 국내 H&B숍 시장에서 세포라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지 업계로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H&B숍의 경쟁력은 상품 구성력에서 나온다. 브랜드를 단독으로 론칭하고, 자체상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업계는 세포라의 강점으로 꼽히



시코르 강남역점 외관. 사진제공 신세계

는 '글로벌 브랜드 판권'만으로 시장을 흔들 만한 경쟁력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H&B숍의 한 관계자는 "세포라가 자체 상표 브랜드나 국내에 판매하지 않는 글로벌 브랜드의 판권을 얼마나 들여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외 직구가 활성화된 만큼 세포라에 입점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갖는 경쟁력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뷰티 브랜드 편집숍이라는 세포라의 성격은 신세계가 이미 도입한 '시코르'와 비슷하다"며 "시코르는 21호점까지 열며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세포라가 차별화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2016년 론칭한 시코르는 가성비 높은 화장품 위주로 취급하는 여타 편집숍과 달리 나스, 맥, 바비브라

운, 슈에무라 등 프리미엄 제품 총 250여 개의 뷰티 브랜드를 판매한다. 시코르는 최근 가로수길에 21호점을 열었으며 올해 40호점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세포라가 외국계 브랜드인 만큼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구성에 뒤처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H&B숍은 시장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 상품을 바로바로 내놓아야 경쟁력이 확보되는데 한국에 진출했던 홍콩계 H&B숍인 '왓슨스'의 경우 국내 업체와 달리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다 보니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며 "세포라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2005년 10월 홍콩의 AS왓슨과의 합작법인인 '왓슨스 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에서 H&B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2017년 왓슨스 코리아 지분을 전부 인수해 100% 지분을 갖게 됐고, 사명을 탈라블라로 바꾸며 단독 경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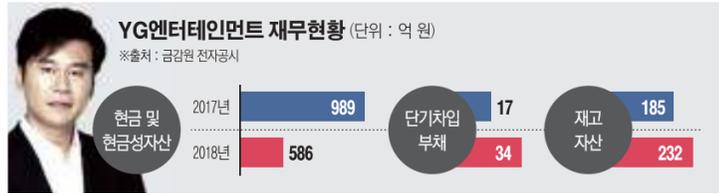
탈라블라 관계자는 "왓슨스 때와 달리 GS리테일이 단독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이 빨라졌고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게 됐다"며 "뷰티 트렌드에 맞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입소문 탄 이슈 상품을 구성하다 보니 중소기업 제품 취급 비중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승리 리스크’ YG엔터, 현금자산 40% 급감

<전년대비>

작년 매출 줄고 재고자산 늘어  
현금자산 585억으로 줄어  
계열사 실적 부진까지 악재 겹쳐  
루이비통 투자금 상환 가능성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가 승리의 성정대 앞선 의혹으로 연일 논란인 가운데 현금 유동성마저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 급락 여파로 최대 주주(17.33%)인 양현석 회장의 근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YG엔터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30% 감소한 2858억4634만 원, 영업이익은 62.36% 감소한 94억8407만 9518원을 기록했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재무상황에서도 아쉬움이 드러났다. 우선 기업의 유동성 능력을 나타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급감했는데, 585억65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78% 감소했다.

반면 재고자산은 눈에 띄게 늘며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재고자산은 231억60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25% 증가했다. 음반, MD상품 등을 비롯한 제품·재공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단기차입부채도 유동성 위협을 키우

는데 한몫했다. YG엔터의 지난해 단기차입부채는 33억60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95.53%) 가까이 늘어났다.

현금 유동성이 약해진 가운데 계열사들의 부진도 모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42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YG엑스는 지난해 손실이 12억 원으로 늘었고 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더블랙레이블도 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계열 내 유일한 상장사인 YG플러스 역시 여전히 적자(-14억 원)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YG플러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모기업과 달리 음식, 스포츠, 금융투자 등 신사업을 도맡고 있다. 그러나 음식 사업을 하는 계열사 YG푸즈의 손실은 전년 대비 109.29% 악화된 32억7923만 원을 기록했고, 투자업을 담당하는 YG인베스트먼트는 손실 7억4000만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일련의 부진 속에 YG플러스 역시 부채비율이 19%에서 27%로 늘어난 모습이다.

계열사들의 연쇄적인 실적 부진과 모기업의 유동성 불안 속에 당장 올해 대규모 상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2014년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Great World Music Investment Pte. Ltd라는 펀드를 통해 610억 원을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다. 이자율

2.0%를 적용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662억1764만 원으로 늘었다.

해당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계약했으며 10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만기 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최근 박병 승리가 상매대 앞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전환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LVMH는 계약 당시 보통주 전환가격을 4만3574원으로 책정했지만 15일 종가 기준 YG엔터 주가는 3만5700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10월 까지 YG엔터의 주가가 보통주 전환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투자업계는 전환 대신 투자금 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유동성 위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대명 기자 koda00@

## 엔터株 시총 6000억 증발

YG·FNC 등 5개사 주가 하락... 지분 보유 국민연금 332억 손실

‘승리 게이트’ 여파로 K팝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요 상장사들의 시가 총액이 6000억 원 가까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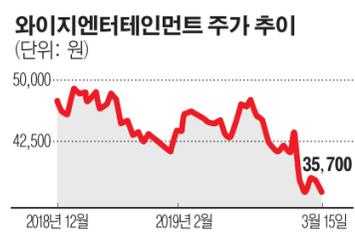
FNC엔터테인먼트 등 5개 주요 엔터테인먼트 상장사의 시총은 지난달 26일 이후 현재까지 5870억 원(17.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주요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들의 시총은 승리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월 25일 3조3501억 원에서 이달 15일

2조7631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15일까지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24.84%나 하락했고, 시총은 2146억 원 감소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FT아일랜드, 씨엔블루 멤버들이 소속된 FNC엔터테인



먼트도 같은 기간 주가가 22.24% 떨어졌다. 승리 사건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SM엔터테인먼트나 큐브엔터테인먼트도 같은 기간 각각 -21.29%, -25.88%대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다. 엔터주 시

총 1위 종목이자, 지난해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JYP엔터테인먼트도 같은 기간 5.54% 주가가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포털사이트 주주 게시판에서 ‘승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YG 지분 6.06%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8.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경우 같은 기간 양사의 보유 가치가 332억 원(YG 140억 원, SM 192억 원) 감소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파인텍, 유상증자에 사활걸었다 “고순도 ‘진세노사이드’ 대량 생산기술 확보”

작년 매출 반토막... 청약 미달엔 채무 불이행 전망도

디스플레이 산업 부진 여파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파인텍이 유상증자 납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상증자 청약률과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인텍은 375억 원 규모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 수는 2.93173847주이며 구주주 청약일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 납입일은 닷새 뒤인 7일이다.

유상증자 신주의 예정발행가는 1135원으로, 4월 25일 확정된다. 15일 종가 226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파인텍이 이처럼 예정발행가의 할인율을 높인 이유는 그만큼 자금 조달이 급하기 때문이다.

파인텍은 지난해 2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사채(BW·10회 차)를 공모 발행했는데,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높은 상태라 올해 첫 조기 상환일인 5월 11일에 사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유증 조달 재원으로 BW의 조기상환과 단기차입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저조한 청약 결과로 원하는 만큼의 조달이 이뤄지지 않고 BW 상환 요구가 들어온다면,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진행되는데 이전과 달리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한다.

10회 차 BW 청약에서는 목표했던 금액 250억 원 중 11%가량인 28억 원 수준의



청약만 이뤄졌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유증에 최대주주인 강원일 대표는 전체 배정 주식 수 625만 주 중 15%가량인 93만 주 수준만 참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회사 역시 이번 유증에서도 10회 차 BW 수준의 청약만 이뤄질 수 있으며 목표한 금액만큼 조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파인텍은 증자로 원하는 만큼 재원 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조기 회수, 매입채무 결제일 연장 등을 통해 조기 상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으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파인텍은 2월 말 현재 가용 현금 40억 원을 보유 중이며 증자 자금이 181억 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와 담보 차입도 여의치 않은 최악의 경우에는 BW 관련 채무 불이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로 인해 기타 은행권 차입금의 상환 요구에 따라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할인율을 최대한 적용해 주주들의 증자 참여를 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CEO 인터뷰

이진하 모든바이오 대표

모든바이오 이진하 대표(사진)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상장 계획을 밝혔다.

모든바이오는 인삼으로부터 30여 종의 진세노사이드를 98% 이상으로 개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이다. 모든바이오 연구진은 각 진세노사이드별 맞춤형 소재(항암제, 건강기능식품 소재 등)·신약을 개발 중이다.



이진하 대표이사는 이투데이와 서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상장 주관사는 연내에 선정할 예정”이라며 “2020년 기술성 평가를 시작으로 이르면 2020년 말, 늦어도 2021년 초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항암 치료에 효능을 보이는 MDB-7103과 MDB-7102의 고순도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했다”며 “신약 개발 전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원료 공급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진세노사이드의 안정적인 추출 능력이다.

일반적인 천연의약품은 생산 환경에 따라 균질한 품질을 갖추기 어렵다. 반면 모든바이오는 인삼에서 원하는 성분만을 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알츠하이머 등 임상수탁기관 통해 동물 실험 건기식·화장품 원료 공급도 추진 연내 주관사 선정... 내년 말께 상장

순도로 분리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해, 진세노사이드를 앞으로 건기식 소재, 화장품 소재, 신약 원료 등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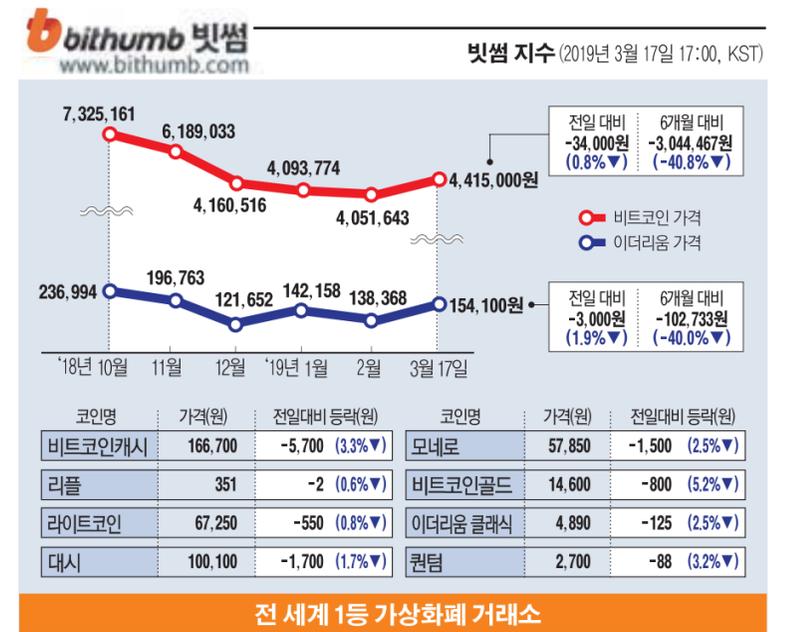
이진하 대표는 “현재 인삼에서 추출되는 진세노사이드계 후보물질들을 활용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황반변성, 류머티즘 관절염, 루프스, 다발성경화증, 혈액암, 알

츠하이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며 “현재 가장 속도가 빠른 질병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황반변성, 알츠하이머 등 3가지 질환으로,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통해 동물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기식 사업은 인삼의 여러 성분 중 항암·항염·항비만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Rg3’, ‘CK(Compound K)’ 등을 대량 생산·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 대표는 “건기식 사업의 주력 계획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개발 후 외주 생산 형태 또는 개발과 제조를 병행하는 형태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jim@



# ‘투기과열’ 지정 20개월... 집값 오히려 40% 올랐다

**하남 46.6%·과천 43.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수준 교통·학군 등 인프라 좋아 인기**

8·2 대책 이후 20개월이 지났다. 규제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으며 지방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 수성구만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가파른 상황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2 대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기준 3억 6974만 원에서 올 2월 5억 430만 원으로 36.4% 상승했다.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시기 대구 전체 평균은 2억 5851만 원에서 3억 1117만 원으로 16.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성구의 상승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2017년 8월 5억 9759만 원에서 올 2월 8억 4862만 원으로, 평균 아파트값이 42.0% 올랐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시기 34.3%, 광주시는 7.4% 올랐다. 마찬가지로 경기 과천시 43.8%, 하남시는 46.6%, 세종시는 37.7%, 서울시는 38.3% 오르는 등 투기과열지구 모두 각 인접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시기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21.0%였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엄격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에 다 △LTV·DTI 40% 적용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85㎡ 이상 주택은 50%)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제가 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집을 구입하면 증여, 상속금액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규제에도 투기과열지구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강남을 대체할 신흥 주거지로 부상했으

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문학교 및 학원가가 인기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데다 신도시인 행복도시 인근의 토지 개발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규제 강화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책 발표 후에도 상승률은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입지적 장점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라면 해당 지역 내 유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공시가 2억 푼 강남 주공1단지... 보유세 최고 50% 증가

**반포 주공 1단지도 50% 오를듯**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자료를 내놓은 가운데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고가 아파트들은 많게는 수십퍼센트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투데이는 서울 각 구와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권 주요 도시들의 대표 단지들의 10층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얼마 정도 상승할지를 조사했다. 서울 강남권인 강남4구(강남, 강동, 서초, 송파)의 보유세가 최고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강남4구 각 자치구에서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 단지는 △강

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1억1749만 원)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9735만 원)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5500만 원)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7060만 원)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열람 가능한 2019년 공시가격(안)을 통해 공시가를 살펴본 결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21~28%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는 40~50%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단지별로 보면 강남구 주공1단지(50.67㎡, 5층)의 공시가격은 작년 8억 7200만 원에서 올해 10억 8000만 원으로 23.85% 올랐다. 보유세는 작년 약 249만 원에서 371만 원대로 120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전용면적 106.26㎡, 5층)의 공시가격은 작년

18억 5600만 원에서 올해 23억 7600만 원으로 28.02% 올랐다. 보유세는 약 903만 원에서 1354만 원대로 450만 원(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134.36㎡, 10층)의 공시가격은 21.64%(10억 7200만→13억 400만 원) 오르고 보유세는 366만 원대에서 527만 원대로 160만 원(43.9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58.21㎡, 5층)의 공시가격은 6억 200만 원에서 7억 4300만 원으로 23.42% 올랐고, 보유세는 148만 원에서 약 193만 원으로 3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올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해 주택소유자들이 보유세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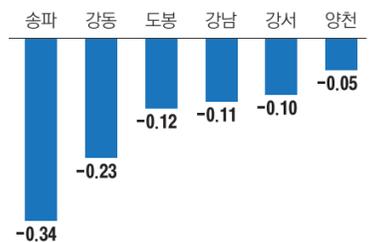
## 송파 아파트값 1주일 새 1억 증발

**공시가 오르고 서울시 정책 영향 주간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 -0.22%**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낙폭을 키웠다. 거래 절벽에 공시가격 인상과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등 악재를 더한 상황이다. 도시·건축 혁신안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의 개입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8%로 한 주간 아파트는 0.22% 내려간 상황이다. 반면,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1%)은 전주보다 하락폭이 0.02~0.04%포인트 줄었다.

서울은 송파(-0.34%), 강동(-0.23%), 도봉(-0.12%), 강남(-0.11%), 강서(-0.10%), 양천(-0.05%) 순으로 하락했다. 송파는 초기 재건축 단지인 신천동 장미1차가 4500만~1억 원가량 하락했다. 강동은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명일동 삼익그린2차가 1000만~5000만 원 하락했다. 강남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의 매물이 일시에 나오면서 면적별로 5000만 원씩 하락했다. 대치동 개포우성1차의 경우 1억 원 이상 급락했다. 신규 입주단지로는 수요가 분산되면서 노후 아파트의 매수세가 더욱 위축됐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동탄(-0.15%), 광고(-0.12%), 평촌(-0.07%), 분당(-0.02%) 등이 내림세를 보였다. 동탄은 매물이 쌓이면서 청계동 사범우남퍼스트빌, 반송동 사범한빛금호어울림 등이 500만~1500만 원 내려갔다. 경기·인천은 의왕(-0.12%),

**서울 주요지역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안성(-0.06%), 오산(-0.05%), 고양(-0.04%), 광명(-0.04%) 등이 하락했다. 반면 군포(0.05%), 구리(0.05%)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2% 떨어지는 데 그쳤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7%,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일제히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강동(-0.18%), 강서(-0.15%), 마포(-0.12%), 영등포(-0.12%) 등의 순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반면 송파(0.16%)는 전주에 이어 전셋값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재건축 영향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전셋값이 500만~1500만 원 더 올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셋값 하락에다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택 처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곳이나 입주물량 공급과잉으로 고전하고 있는 곳 등 위축지역의 집값 하락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며 “조세 부담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인기 지역이 아니거나 보유가치 높지 않은 주택의 매도가 먼저 이뤄질 것이다 보니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서울 오피스 투자 수익률 ‘홍대합정’ 1위

지난해 10.84%... 광화문 뒤이어 서울의 상업용 빌딩(이하 오피스)이 유망 투자처로 주목 받는 가운데 지난해 홍대합정, 광화문, 서울역, 서초, 공덕역 등 5개 지역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익률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8.2%로 전국 평균 7.4%보다 0.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내 오피스 밀집지역 23곳 중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홍대합정으로 10.84%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화문(9.64%), 서울역(9.26%), 서초(8.98%), 공덕역(8.59%)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 톱5 (단위: %)**



투자 수익률이란 임대료 등 빌딩 운영에 따른 소득 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 수익률을 더한 수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금주의 분양캘린더

3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501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562가구, 지방 4449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도시하우스디아반’ 등이 당

첨자를 발표한다. 이주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9곳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등이다. 견본주택은 5개 단지가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안테라디움광안(오피스텔)’ 등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0 (수)	발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웨이2				
3/18 (월)	접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한울에이치밸리움B동 1순위(당해지역)	(수)	계약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호명타운(공공분양) (~3/22)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3/19) ▲						성남시	창곡동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A2-13)공공임대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3/19) ▲						수원시	고동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공공분양)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3/19) ▲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도시하우스디아반 ▲	
3/19 (화)	접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한울에이치밸리움B동 1순위(기타지역)	(목)	계약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3/22) ▲				
					원주더샵센트럴파크(1단지) 1순위						원주	원주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3/22) ▲		
					원주더샵센트럴파크(2단지) 1순위						경기	전북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A1-3(행복주택)
					원주더샵센트럴파크(3단지) 1순위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	
3/20 (수)	발표	경기	수원시	서둔동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	(금)	계약	경북	포항시	죽동	포항동부이글빌 (~3/26)				
					수원역한라비발디퍼스트 ▲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신서혁신도시하우스디아반 ▲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						(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						(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자료: 부동산114

# 서울시내 모든 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대상지 267개 역 → 307개 역 확대 "1만9000가구 이상 공급 늘 것"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이 서울 시내 전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과 김태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발의한 2건의 안을 통합한 것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총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 민간임대 1만300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총 9512실(공공임대 2101실, 민간임대 7411실), 사업인가 준

비 중인 곳은 21곳 총 9558실(공공임대 1735실, 민간임대 7823실)이다. 총 3만 1960실 규모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연장 등이다.

당초에는 사업대상 역이 교차역,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 서울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 대상이었으나,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km<sup>2</sup>(14.4km<sup>2</sup> → 16.0km<sup>2</sup>) 넓어지고,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9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나,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광화문광장 떠나는 세월호 희생자 영정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임시 보관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후 약 4년 8개월 만에 유가족 측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라 18일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대법 "재직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 "지급요건 한정, 고정성 결여"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황모 씨 등 3명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계산 방식에 오류

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가산율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5년부터 시설안전공단에서 근무한 황 씨 등은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기술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지만 회사 측이 보수규정에 이를 제외시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한 만큼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시

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1심은 시설안전공단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황 씨 등에게 각각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미지급한 2800만~3500만 원의 시간외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씨 등에게 각각 700만~7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女風당당' 서울시 5급이상 공무원 비율 23.1% 3년째 전국 1위...전체 46.5%

서울시는 2018년도 기준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23.1%로 3년 연속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서울시 목표율은 21.9%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비율은 15.0%다.

서울시는 "5급 승진 선발 시 동일 조건

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핵심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서울시의 신규 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56.1%였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6.5%를 기록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노인성 질환 돌봄서비스 154억 투입

### 서울시, 신설시 최대 10억 지원

서울시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의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 데이케어센터 지원

에 154억1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올해 33억7000만 원을 투입해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는 자치구와 법인

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에는 운영비, 환경개선비, 인건비 등 총 120억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데이케어센터 391곳이 운영 중이며, 49%인 192곳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았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한 해 평균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19. 03 3월호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약을 차려입다

8000이 넘는 크지 않은 사이즈, 가벼운 소재, 편안한 핏을 가진 디자인,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차려입기 쉽

국산 명품 스타일리시하게 에약을 차려입다

그녀의 나이는 그녀를 오롯이 안았습다

원로 역도 이상 첫 3편을 위한 연신비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약을 차려입다

**Elegance**

####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약을 차려입다

PART1. 철학이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스타일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컬렉션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동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 월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옛말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이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명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래디 마이클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러한 가수 배호를 떠올린다. 비만 병환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동부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하지만 예외는 혈액투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6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명권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귀촌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살이 찰수록 건강도 심은 대로 살 태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살기 심상이다. 이럴 때 살이란 위대한 곡예에 가깝다. 곡예 역시 전문을 즐긴다는 점에서 전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왕지사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활로로 삶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뭐라 하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 신라산가 만난 사랑

생의 '남'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 다르다. 성공과 실패, 고수 연애회

소통과 공감을 위해 다시 청춘을 느껴하다. 8000대의 아이본, 조장현, 송시현, 이범하

질투 7인 여승가미, 미치광이 같은 예술혼, 전라 작가 진공재, 권기호. 태운 인생을 말하다

####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개항누리길'을 걷다

전철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전철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무를 통과하면, 100년대 말 인천 개항 시절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하루, 나머지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월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반상**  
올해이드 사할음식  
보리누룻지와 보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갑호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탈라국  
왕자님께

# '추경'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김남현의 **알기일부**

'모순(矛盾)'·창과 방패라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한 주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의 연례협의 발표 결과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부진한 고용 창출로 중단기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에서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다. 9조 원이라는 수치까지 못 박은 것은 이례적인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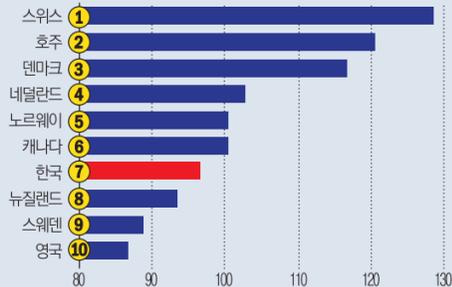
더불어 금리인하 여부는 한국은행이 결정할 부문이라고 전제했지만,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주문하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해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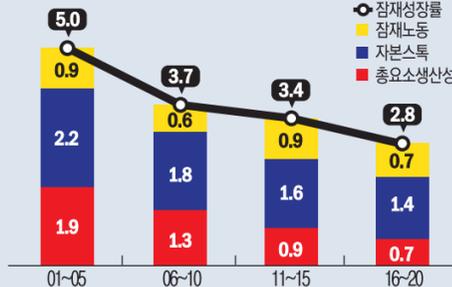
◇정부·여당 기다렸다는 듯 부양에 초점, 전문가들은 뒷북 비판 = IMF의 추경 권고가 있던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 예비비 지출 등 기존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나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14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확장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위국**  
(단위: %, 2018년 3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단위: %, %p, 생산함수모형 기준)



**경제성장률(GDP) 추이**  
(단위: %) ※ 2019년, 2020년은 전망치



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리 결정의 당사자인 한은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은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도 완화적 수준"이라며 "IMF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의 완화적 수준을 유지하

대체로 늦은 감이 있어 왔다. 이번에도 지난해 경제 상황이나 맞는 권고"라고 평가절하했다.

◇빛내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의 교훈 = 박근혜정부 시절 소위 빛내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게 아닌가 싶다.

세계 비교가 가능한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가계 빚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6.9%로 43개국 중 7위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이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0.9%포인트 늘어 중국(1.2%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빨랐다.

그 사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 경제가 최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2011~2015년) 3.0%에서 3.4%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2016~2020년) 2.8%에서 2.9%로 주저앉았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6%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를 거치며 급격히 하락했다.

한은은 올 상반기 말까지 새롭게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기준 전망치(2.8~2.9%)보다 낮을 것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개혁 나서야 = "최근의 경기회복이 중장기적 안정 성장궤로 진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조정의 부단한 추진, 수출 증대 및 외환시장 안정 기반 강화 등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기침체에서 아직까

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1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국내외 경제동향을 종합평가하는 결론 부문에 나온 문구다.

2017년 7월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시장규제 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경제 성숙화와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투자 부진을 꼽았다. 향후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공급 요인의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의 인구고령화 추세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이르면 15여 년 후인 2036~2045년 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는 바 있다. 그 이후(2046~2055년 -0.1%)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부양책은 인기영합적일 수 있겠다. 하지만 가리앉고 있는 우리 경제를 막을 수 없음을 이미 경험했다. 20여 년 전인 1999년이나 지금이나 구조조정 내지 구조개혁이 답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목표 2.7% 달성 위해 9兆 추경 권고 여당 "확장적 재정정책 검토 필요... 정부 적극 나서야" 주문 전문가 "IMF 권고는 뒷북... 비생산적 단기대책 양산 우려"

라는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IMF 권고를 뒷북 지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교사이자 한때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현 정부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스터(Mr.) 쓴소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MF는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 중심의 비생산적 단기 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체로"라며 꼬집었다.

앞선 금통위원은 "그동안 IMF 권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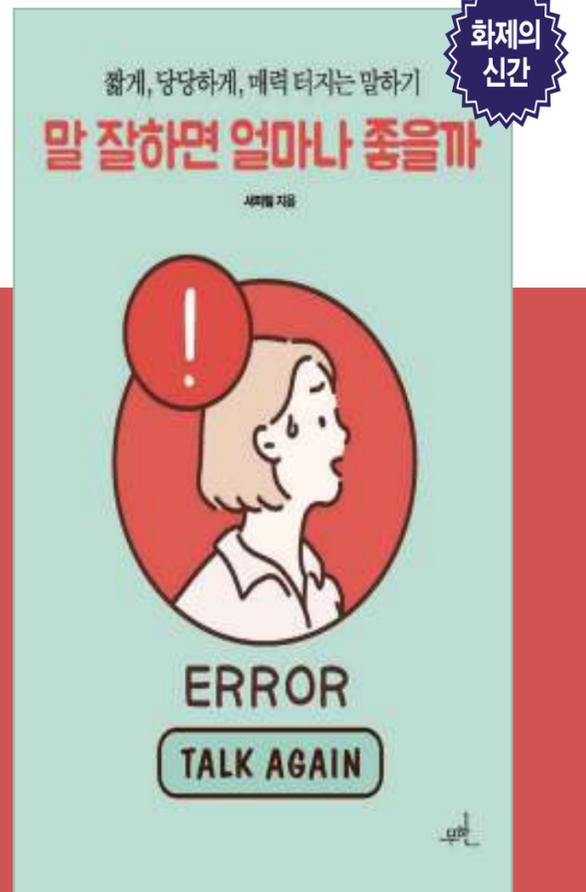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었고, 기준금리도 그 유명한 "적 하면 적" 발언을 통한 압력 행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2.00%)보다 더 낮은 1.25%까지 낮췄다. 하지만 성장률은 2014년 3.3%로 반짝 상승했을 뿐 다시 2%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반면 5~6%대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초이노믹스 시행 직후인 2015년 10.9%로 급증하더니 2016년 11.6%를 기록하며 2006년(11.8%)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총량도 지난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01**

## 바르게 닦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시작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미래혁신부문장〉

‘한화 3세’ 김동원, 세계 최대 핀테크 콘퍼런스 데뷔

# 디지털금융 혁신 아이디어 찾는다

금융 계열사 CEO들과 함께  
싱가포르 ‘머니 2020 아시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참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이자, 한화그룹 오너가 3세 김동원(사진) 한화생명 미래혁신부문장 상무가 금융계열사 대표 이사들과 세계 최대 ‘핀테크(Fintech)’ 행사인 ‘머니(Money)2020 아시아’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한화생명은 김 상무를 비롯해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용현 한화자산운용 대표 등 금융계열사 임직원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머니2020 아시아’ 콘퍼런스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상무가 이번 행사에서 금융계열사 수장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한화그룹에서 김 상무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특히 김 상무가 초반부터 한화그룹에서 핀테크 사업을 맡아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행사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를 졸업한 김 상무는 졸업 후에는 작은 공인기획사나 마케팅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가 한화그룹에 발을 들인 것은 2014년. 김 상무는 이후 줄곧 핀테크, 혁신, 해외 진출 등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자리를 거쳤다. 핀테크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팀장으로서부터 업무를 시작해 2015년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 2016년 전사

혁신실 상무에 이어 2017년 12월 디지털 혁신실 상무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에는 한화생명의 미래혁신총괄 겸 해외총괄 부문장으로 올라 그동안 해왔던 디지털 사업전략과 디지털 신사업,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머니2020’은 금융권과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행사다. 금융, 통신, 플랫폼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규제당국도 참여해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도 구글, IBM 등 IT기업과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 금융그룹을 포함해 총 140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한다.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처음으로 참석한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는 유일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금융그룹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핀테크 업계 글로벌 리더들과의 소통으로 금융그룹의 미래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모색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 생태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대우조선’ 인수 마무리한 권오갑 현대중 부회장 “각별한 마음으로” 정주영 회장 선영 참배

‘조선 세계 1위’ 사명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참배했다.

17일 현대중공업은 권 부회장이 전날 정주영 명예회장의 18주기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정 명예회장의 선영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대우조선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가삼현 사장과 조영철 부사장 등을 비롯해 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창업자 선영 참배는 매년 있어왔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은 “권 부회장으로서 올해는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올렸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본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반세기 전,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허허벌판인 미포만 백사장 사진



권오갑(맨 앞줄 가운데)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16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한 장을 들고 우리나라 조선업을 개척하셨던 순간이 떠올랐다”며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권 부회장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떠올린 것은, 고인이 시작해 일군 ‘조선 세계 1위’의 위상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명감에서 이번 인수전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넷마블장애인선수단’ 창단... 게임업계 최초

넷마블문화재단이 게임 업계 최초로 장애인 선수단을 창단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14일 넷마블 본사에서 ‘넷마블장애인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창단식은 ‘넷마블장애인선수단’ 7명을 비롯해 박은수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넷마블문화재단 서장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게임업계 최초의 장애인 선수단인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은 국가대표를 지낸 강이성(남), 최범서(남), 선진(여), 김보은(여) 선수를 비롯해 20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임효신(여), 이



승주(남), 한은지(여) 선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넷마블장애인선수단’은 넷마블문화재단 소속 선수로서 전국장애인체전 및 세계 선수권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여한다.

조선준 기자 tatio@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이규석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이규석(48)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지낸 인물로 문화예술 여러 분야의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2022년 3월 14일 까지 3년이다. 김소희 기자 ksh@



대림산업 임원이 안전체험학교에서 VR 장비를 착용하고 고소작업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림산업

## 대림산업·협력업체 임직원 안전체험교육 실시

대림산업은 3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안전체험학교에서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 302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해욱 대림 회장은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올해 1월 안전체험

학교를 개관해 대림그룹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앞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해 현장 시공 관리자, 본사 직원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82회에 걸쳐 총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51)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며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 업무를 협조·조정하는 차관급 직위다.

목포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한 김원이 내정자는 자치구·서울시·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쳤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했으며 2014~2015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상공인의 날’ 확대한 ‘상공인 주간’ 첫 개막

대한상의, 18~22일 다양한 행사

전국 상공인들의 축제 ‘상공인 주간’이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상공인 주간은 한국 경제의 주역인 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상공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기념일인 ‘상공의 날’을 올해부터 ‘상공인 주간’으로 확대하고 매년 3월 셋째 주에 다양한 행사를 개

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올해 상공인 주간은 ‘상공인이 열어가야 하는 희망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상공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 상공의 날 기념식 및 상공인의 밤 행사 등이 열린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행복나눔 판매전’은 물론 지역별 봉사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인사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노동위 조정심판국장 김효순 △충북지방노동위 위원장 송병준 △전북지방노동위 위원장 마성균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임승순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상용 △인력개발정책과장 금정수 △고용차별개선과장 오영민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덕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황중철 ◇과장급 파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 이강연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파견 박상욱 ◇4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식 △고객지원팀장 신제욱  
◆중앙그룹 ◇미디어리빙크영업본부장 표재용

## 현대백화점 임직원 봉사활동 1만8000시간 돌파

현대백화점의 임직원 사회봉사활동이 연간 1만8000시간을 돌파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약 1200명의 임직원이 4500회 봉사활동에 참여, 총 1만 8240시간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1만 8000시간은 비행기로 지구를 약 420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는다.

올해는 임직원과 고객으로 구성된 ‘파랑새 봉사단’을 통해 65개 사회복지기관과 결연을 맺고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은 ‘뽕 만들기 봉사’, ‘청각 장애 아동

을 위한 자막 입력 봉사’, ‘재활용 크레파스 제작’ 등이다. 또한 상반기 내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위치한 현대어린이책미술관(MOKA)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외 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2만 시간을 목표로 임직원들이 연간 3회 이상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쿠팡 CCO 월마트 출신 조르겐센

쿠팡은 미국 월마트 출신의 법률전문가 제이 조르겐센을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윤리경영책임자(CCO)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르겐센 쿠팡 CCO는 세계적인 유통기업부터 글로벌 로펌,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분야의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12년부터 7년간 미국 월마트 부사장 겸 CCO를 지냈다.



남주현 기자 jooh@

모친상, 이효윤(전 대아주택 사장)·김두성(안양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전 예성총회장) 씨 장모상, 조문희(예성교회 담임목사) 씨 시모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10시, 02-2258-5940

▲정희숙 씨 별세, 유문금·효근(전 서울 YMCA위원)·체근(한남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교수)·문경(전 바르레이즈은행 상무) 씨 모친상, 박창식(전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실 부장) 씨 장모상, 백경희 씨 시모상 =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2-2072-2020

▲황명국 씨 별세, 김장길(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수석위원) 씨 장인상 = 16일,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8일 오전 10시30분, 02-2224-2193

김성희의 인문경영



작가

노나라의 신임 관리가 재물창고인 장부(長府)를 새로 지으려고 했다. 그때 공자의 제자 민자건(閔子騫)이 한마디 죽비소리를 던졌다. “예전 것을 유지하면 어떠한 말인가? 무엇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 하는가?” 공자는 “민자건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말을 했다 하면 꼭 핵심에 들어맞는다”라고 칭찬한다.

“새로 맡은 일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만약에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해내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일이 잘된다고 해도 애를 너무 많이 쓴 덕분에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성공하건 못하건,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 것은 오직 덕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경지인가 봅니다.”

초나라 사신이 되어 제나라와 외교협상을 맡게 된 섭공(葉公) 자고(子高)란 인물이 공자에게 상담을 청하는 내용이다. 오늘날로 바꿔놓고 보아도 통하는 이야기 아닌가. 일을 못해서 불명에 퇴진하고 싶지도 않지만, 잘하려면 탈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 공자는 “중도를 지키라”고 조언한다. 요컨대 너무 잘하겠다는 조바심, 성과에 대한 두려움을 비워야 오히려 일을 잘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장자 인간세(人間世)편에 나오는 공자와 섭공의 가상 문답이라 장답게 마음경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가(儒家)와도 통한다. 논어를 살펴보면 공자는 실제로 신임 관리자가 된 제자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한다. 그 핵심은 잘해내야겠다는 조바심과 성과 욕심에 대한 경계다. 제자 자하(子夏)가 노나라

의 읍인 거보란 마을의 관리로 가게 되었을 때 일이다. 그때 공자가 해준 이야기도 과속, 즉 성과를 단기간에 내려는 속도 욕심에 대한 경계였다. “일을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한다. 속히 해내려고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子夏爲魯父宰問政子曰無欲速無見小利欲速則不達見小利則大事不成(자로(子路)편)]

새 자리에 오르면 단기간에 가시적 변화를 주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잘하겠다는 욕심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막상 하나도 못해내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조급함과 부지런함을 착각해 열심히 일할수록 성과는 나지 않는 ‘멍부(멍청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는 집중력, 우선순위 여부에서 갈린다. 새로 일을 맡기기보다 없앨 일을 정해 우선순위를 정하라.

노나라의 신임 관리가 재물창고(제도란 해석도 있다)인 장부(長府)를 새로 지으려고 했다. 그때 공자의 제자 민자건(閔子

騫)이 한마디 죽비소리를 던졌다. “예전 것을 유지하면 어떠한 말인가? 무엇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만 하는가?” 공자는 “민자건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말을 했다 하면 꼭 핵심에 들어맞는다”라고 칭찬한다.

신임 리더가 되면 뭔가 전임 리더의 일과 정책 등을 바꿔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혁신은 새로 덧붙이는 것보다, 유지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먼저다. 신임 리더들이 새로운 포부에 부풀다 보면 과거의 제도, 시스템 등은 모두 없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통해 변화와 긴장을 불러오는 효과를 가져오려는 마음도 있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혁신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 어떤 일을 줄이거나 없앨지 결정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진정한 혁신을 하고 싶은가. 새로 벌이기보다 타성에 젖은 조직의 관행이나 관습을 재점검, 잘못된 점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부터 서두르라. 바쁘게 가기보다 빠르게

가려는 것은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와는 다르다.

제자 중궁(仲弓)이 노나라 대부 계씨의 가신으로 가게 되어 신임 관리자의 리더십을 물어봤을 때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실무는 실무자에게 맡겨라. 작은 실수는 용서해주라.”[仲弓爲季氏宰問政子曰先有司赦小過(자로편)] 중궁은 기록상 개인 실력면에서 하이퍼퍼머형이지만 리더십은 떨어지는 형이었을 걸로 짐작된다. 그걸 알기에 능력 있는 리더가 범하기 쉬운 실수, ‘다른 사람의 일은 눈에 안 차’ 다 해치워 버리고 작은 실수도 넘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한 것이다. 리더가 구성원의 실력을 기르는 것을 도외시하고, 본인이 다 처리해야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조직 성과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다.

신임 장관 내정과 각종 인사 보도가 잇따른다. 좌지우지하지도, 우왕좌왕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좌고우면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 공자의 조언을 명심해 조바심을 버리고 과속 증후군을 경계하더라도 국민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 케빈 리먼·윌리엄 펜택 ‘양치기 리더십’

“항상 양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리더가 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자원들이 도처에 깔렸더라도 구슬을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내듯이 이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단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리더와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가장이든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뛰어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십을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지만 계속해서 읽히는 책들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그중에 양치기로부터 배우는 리더십을 정리한 책인 케빈 리먼과 윌리엄 펜택이 지은 ‘양치기 리더십’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책은 뛰어난 양치기가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관찰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사람을 이끄는 원리와 실천법을 정리했다. 나온 지 꽤 되었지만 30세를 넘어서 정도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양치기가 양을 움직이는 것과 리더가 사

람을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저자는 이를 7가지 주제로 삼아 쉽고 재미있는 책을 펴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리더십의 위기라 부를 정도로 혼란스럽다. 책을 열자마자 한 문장이 마음에 울림을 남긴다. “위대한 양치기에게 양떼를 이끄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의 일부다.” 이런 금언은 이 땅의 리더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책은 인터뷰하기 위해 자신을 찾은 한 젊은 기자를 상대로 뛰어난 최고 경영자가 양치기 리더십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그 경영자조차 오래전 경영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이라 한다.

최고의 경영원칙은 다음의 7가지다.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라. △양들의 뒤편이를 파악하라. △양들과 일체감을 갖도록 하라. △목장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라.

△방향을 가리키는 지팡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회초리. △양치기의 마음을 품어라.

“많은 리더가 일에만 너무 관심을 쏟고, 사람한테는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지. 마치 오늘 아침에 자네와 내가 양떼 주위를 걷고 있을 때 자네가 마음을 양떼에 두지 않고 행동했던 것처럼 말아야.” 양떼의 상태를 건강건성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양떼 한 마리 한 마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온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리더가 시중의 아우성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처방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항상 양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어떤 점에 주목해서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까. ‘SHAPE’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이 압축돼 있다. 강점(Strength), 가슴(Heart), 태도(Attitude), 성격

(Personality), 경험들(Experiences)을 뜻하는 영어의 앞 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다. 저자는 “양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양들의 뒤편이(SHAPE)를 파악하라는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발 짐승 중에 양이 제일 똑똑하지 않을진 몰라도, 자기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릴 능력이 있네.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발끝에서 새삼살금 걸어 다니지, 불안감 때문이야.” 리더는 부하들의 아우성이 크지만 높아질 때면 문제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리더의 책무는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리더들에게 “직장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급이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일독할 만한 책이다. 공병호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그로버 클리블랜드 명언

“특별 계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그들이 정부에 의존하도록 부추길 뿐이며 이는 국가의 강인함을 약화시킬 뿐이다.” 텍사스 주 가뭄 피해 농부들이 씨앗을 구입할 수 있게 1만 달러를 지원하지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가 법안을 거부하며 쓴 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그는 미국 22·24대 대통령. 오늘이 그의 생일. 1837~1908.

☆ 고사성어 / 중심성성(衆心成城)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뜻. 주(周) 경왕(景王)이 거대한 종을 만들자 악사(樂師) 주구(州鳩)가 반대하며 한 말. “백성들이 찬성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문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간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면 성을 이룬다 [衆心成城]’라고 말하는 어지입니다.” 출전 국어(國語) 주어(周語) 하편.

☆ 시사상식 / 공유 오피스(share office)

건물을 여러 개 작은 공간으로 나눠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입주자에게 사무 공간으로 다시 임대해 주는 시스템. 사무 공간 마련의 부담을 덜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쉽게 확장 혹은 축소할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껌병이

원말은 껌병이. 갓 갠 썩의 새끼 껌병이는 어미 껌투리를 따라다니려고 가늘고 긴 다리가 먼저 발달해 그 모습이 껌병이다. 모양새가 껌처럼하고 불품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 유머 / 고수 천지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와 일른 자리를 뜨려 하자 청소 아줌마가 한마디한다. “총각더러 사진 좀 찍어 달라네.” 옆의 거지도 거든다. “이런 날씨엔 조리개를 2.8로 하는 게 좋아.”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사수첩

서지희 사회경제부 jhsseo@



고가주택에 필요한 ‘전지적 정부 시점’

정부가 14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가격을 떠나 집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시가격의 추진 방향은 형평성이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 그간 남모르게 발생한 고가 주택의 세 혜택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반면 시세가 낮은 지역에 있거나, 중저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 상승률을 낮게 책정했다.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등장한 숫자가 중저가 공동주택 97.9%, 고가 주택 2.1%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97.9%에만 쏠려 있었다는 것이다. 단적인

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변화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저가 공동주택의 세금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알아서 세금을 내겠지. 신경도 안 쓸 거야...” 공시가 변동을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시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보도자료에서도 들리는 듯했

다. 시장의 떠도는 얘기를 투영한 듯한 정책 자료에 아쉬움이 큰 이유다.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자산의 규모를 떠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수행해야 할 책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도자료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들 부처가 9쪽짜리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서고기주택 소유자들의 소득 수준, 주택 시세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 인상이 왜 과도하지 않는지, 세금이 왜 지나치지 않은지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 그랬다면 보도자료에 7차례나 언급했던 97.9%를 위한 정책이 지금보다 더 인정받았을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가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은 물론 내면까지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균형 있게 전체를 바라보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부의 시점이 필요한 때다. 공정함은 사소한 불평마저 사라졌을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

# 인간은 과연 착하고 합리적인가

낙목한천(落木寒天) 정도인가 싶었다. 하지만 북풍한설(北風寒雪)이 불어닥칠 모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우리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을 과감히 집행하면 성장목표 연 2.6~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 상태에서는 '목표 달성 불가'다. 이들이 쓴 용어도 '역풍' '둔화' '떡구름' '금리 인하' 등 IMF 입장에서 쉽게 쓰기 부담스러운 단어들이었다. IMF의 우려 중 청와대와 경제 당국의 패부를 찌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제 그만 꺾을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아집을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재계 인사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도 기업도 본성이 착하고 합리적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은 과연 선(善)한가.

최저임금 급등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편의점 주인이 알바생의 급여를 올려주려면 가게 매출과 이익이 같이 올라야 한다. 임금을 올려준 만큼 노동생산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려면 교육이나 업무자동화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편의점 특성상 매출과 이익이 이유 없이 오를 리 없다. 노동생산성 향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주인이 자기 벌이를 알바생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런 착한 주인이 있을까?

사람의 몸 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판인 비율이 올라간다고 한다. 옥토판인 수치가 올라가면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진다.

## 데스크칼럼

박성호  
산업부장



경제 활동에서 승리와 패배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렸다. 그것도 상대적이다. 똑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일을 하는데 내 수입을 줄이고 종업원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패배다.

자본주의 시대 돈벌기에 혈안이 된 현재 근상의 모습이 아니다. 200여 년 전 영국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스피넨랜드(Speenham land) 법을 시행했다. 지금과 유사한 구조였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노동생산성은 저하됐고 고용주는 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서울시가 써달라고 조르는 '제로페이'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제로페이를 써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서울시와 여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소비자를 도덕적 율가미로 낚아채려 한다.

소비자는 묻는다. "당장 내가 얻는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데 왜 남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사람은 착하지도 선하지도 않으며 기대만큼 쉽게 희생을 감내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인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억 원과 로또 당첨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해 사람들은 동

일한 가치를 부여할까? 아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는가에 따라 씹씹이가 바뀐다. 수백억 원의 로또 당첨금을 평평 소비해 파산하는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고통을 따져보면 신용카드를 낼 때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낀다. 같은 10만 원을 써도 당장 내 지갑에서 현찰이 나가지 않으면 쉽게 카드를 긁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원숭이의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비유를 일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011년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DVD대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월 9.99달러를 받다가 두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월 7.99달러씩 가격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넷플릭스가 꼼수를 쓴다며 비난했고 실제 100만 고객이 떠났다. 그런데 당시 소비자 대부분은 스트리밍과 DVD 하나의 서비스만 사용 중이었다. 결국, 월 2달러를 아낄 수 있는 셈이었다.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이를 근거로 소비자를 설득해야 했지만, 넷플릭스는 사과하고 가격 정책을 철회했다.

사람(기업)이 선하며 합리적이며 희생한다는 생각은 '긍정적 망상(Positive illusion)'이다. 개인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망상과 환상을 무너뜨린다. 특히 결정적 순간엔 내 지갑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매월 들어오던 돈이 끊겼을 때다.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때와 장소에 맞춰 간장구릇, 국구릇, 밥구릇을 만드는 '물'이 돼야 한다. 문 대통령도 '군자'였으면 한다. vicman1203@

## 시설

### 1주택자 보유세 충격 줄일 보완책 세워야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공시가 산정의 형평성과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2019년 공시가격은 5.3%, 서울의 경우 평균 14.2%가 올랐다. 서울은 작년에도 10.2% 인상됐다. 정부는 시세 12억 원(공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상승률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과전(23.41%), 서울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도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7만9055가구나 늘어난 21만9862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재산세도 급증한다. 누진구조의 세금 부과 체계 때문이다.

당장은 크게 늘어날 세금 부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공시가 산정 방식도 현실화율이 지역별·단지별로 들쭉날쭉하고, 서울에서도 시세는 같은데 현실화율의 차이가 커 세금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린 데 대한 형평성도 논란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갑자기 세부담이 커지는 시세상승 지역 1주택자, 집 한 채 말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계층들의 반발이 작지 않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증가로 투기를 막을 필요성은 물론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주택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나, 따로 수입이 없는 은퇴자는 집값이 올랐다 해도 투기와 관련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6억~9억 원'은 인상률이 15.1%, '9억~12억 원' 17.6%, '12억~15억 원' 18.2%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산층의 주택보유세도 급증한다는 얘기가.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생활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대상 선정 기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공시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시지가 평가 때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됐다.

공시가 급등은 결국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도 세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잘못된 조세정책이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불보듯 뻔하다.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 김민수의 이슈 만화경



사회경제부 차장

### 신증보다 행동이 앞선 장관 인사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초대 장관 7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군 미필인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해 종합소득세 2430만 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전에 딸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다. 일련의 행동을 감안할 때 과연 최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

언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며 조롱했다.

고위공무원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편법과 불미스러운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장관 후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현 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 후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 정부 2기 내각 진용을 온전히 갖추었는지 아니면 논란이 증폭되는 후보자들 말미암아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가 개각과 관련해 (인사)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일곱 번 재고, 천을 짜는 마음'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고, 정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충만한 인재를 제대로 발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tearand76@

## 알쏭달쏭

### 호흡(呼吸)

미세먼지가 극성이다. 호흡하기가 어려워 지경이다. 생물체는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동물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몸에 있는 포도당을 연소하여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식물은 낮에 만든 포도당을 밤에 연소하여 열량을 얻기 위해 낮 동안에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함으로써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낮에 숲이나 나무 그늘 밑이 훨씬 청량한 이유는 바로 식물이 내뿜은 산소 때문이다. 식물은 낮에 만든 포도당을 밤에 연소하여 열량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래서 밤의 숲은 낮에 비해 청량하지 않다.

호흡은 '呼吸'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내쉬 호', '들이마실 흡'이라고 훈독한다. 날숨을 '흡'이라고 하고 들숨을 '흡'이라고 하는 것이다. 호흡의 균형이 깨져 내쉬는 호흡이 강해지면 들이마시는 호흡이 약해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숨이 가빠지고 증세가

심해지면 결국 죽는다. 반대로 호흡이 약해지면 몸 안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노폐물이 쌓여 산혈증(酸血症)으로 죽게 된다.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겠다는 욕심에 뱃만 하고 호흡 안 해도 죽고, 더러운 공기라는 이유로 뱃만 하고 호흡 안 하면 역시 죽게 된다. 내쉬고 들이마시기를 번갈아 하는 호흡의 원리 속에 삶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호흡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남에게 베푸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지려고만 하고 내주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생산한 물건을 남들이 소비해 줌으로써 버는 것이 돈인데 그렇게 번 돈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비자금에 조형하면서까지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년에 감옥에 간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호흡은 해야 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남을 위해 다시 써야만 그 많은 돈이 가치를 갖게 되고 감옥신세도 면할 수 있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 100년 전 신념이 100년 후 대한민국에게

100년 전, 민족의 현실을 바꾸고자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정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끄는 나라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KB금융그룹